

# 성경말씀 맛들이기

구약 성경

이름 \_\_\_\_\_

기쁨소식

## 추천사

신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실감이 납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축복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신명기계 신학은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의 성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율법을 지키며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이 하나 되어 구원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시했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생기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하나인 백성이 분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잘못을 저질렀음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복을 받으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패망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면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

긴 하였겠지만, 우리를 잡아온 바빌론 사람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패망하여 귀양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자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다른 민족들을 통해 벌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강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꾸준히 진실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다시 주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70년 유배생활 동안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심홍보 신부님의 ‘성경말씀 맛들이기’ 신약 성경 편을 맛보고 난 다음, 이제 구약 성경 편을 통해 성경 전체를 맛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이어 성경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소공동체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현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차츰 닮아가며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화되는 만큼 우리 공동체가 성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만큼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이 ‘성경말씀 맛들이기’ 구약 성경 편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이

해하고 굳게 믿고, 주님을 섬기며 충실히 따르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공부와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누며, 실천하는 굳건한 신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천주강생 2012년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 머 리 말

가끔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민합니다. 미사드리고 기도할 때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일상에서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고, 거의 주님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쉽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 그리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실현하면,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의 기쁨보다 더욱 커다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15,11)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데 역경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신앙생활의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지키고 이루어야 할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15,12)라는 말

씀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15,13)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은 정말 무어라 말할 수도, 평생 되갚을 수도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실현하려니 겁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되거나 약화될 수 없지만, 액면 그대로 그 사랑을 따르기가 부담스러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모른 채할 수 없어서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란 말씀을 통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혹여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부담스러워 할 것을 미리 아시기라도 하는 듯 우리에게 용기를 안겨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요한 15,14)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은 비단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자발성만이거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라고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15,16<sup>a</sup>)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하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15,16<sup>c</sup>)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른 축복을 주시며 세상에 내려 보내준 귀한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여길 때마다, 웬지 우리 인생이 힘겹다고 여길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마다 신명기계 유다인들이 자성했듯이, 성모 마리아께서 겸허히 순종하며 따랐듯이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 꾸준히 충실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참 기쁨과 참 평화의 하늘나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에제 36,25-28)

‘성경말씀 맛들이기’를 통해 주님 말씀에 맛을 들이고, 그 말씀을 잘 씹어 여러분의 맛있고 풍요한 영적 양식으로 받아 모시기 바라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굳건한 사도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한층 더 용감하고 충실

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천사를 써주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과 '성경말씀 맛들이기' 구약 성경 편을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해주신 라병국, 홍상표, 박진수 신부님, 특별히 성경의 각 권마다 일일이 사진을 넣어주신 김귀웅 신부님, 애써 교정해주신 강 디모테아, 심 가타리나 수녀님, 삼성동 성가정 성당 교리교육위원회 이 리타님을 비롯한 견진교리 담당 강학회원들, 윤 마리아님을 비롯한 예비신자교리 담당 명도회원들, 이 세라피나 본당 사무장님을 비롯한 본당 식구들, 그리고 이 원고를 기꺼이 출판해주신 기쁜소식 전갑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강생 2012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삼성동 성가정 성당  
주임사제 심흥보 베드로 신부

##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 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소서.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시어 주님을 저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살아 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 성경말씀 맛들이기 구약 성경 읽기표

추천사  
머리말

## 1주 생명과 구원의 하느님

- 구약 성경 ..... 14
- 모세 오경 ..... 19
- 1. 탈출기 ..... 20
- 2. 창세기 ..... 24
- 3. 레위기 ..... 28
- 4. 민수기 ..... 32
- 5. 신명기 ..... 36

## 2주 왕정의 몰락과 귀환

- 역사서 ..... 40
- 6. 여호수아기 ..... 42
- 7. 판관기 ..... 46
- 8. 룻기 ..... 50
- 9. 사무엘기 1, 2 ..... 54
- 11. 열왕기 1, 2 ..... 58
- 13. 역대기 1, 2 ..... 62
- 15. 에즈라기 · 느헤미야기 ..... 66

## 3주 박해와 위기

- 17. 토빗기 ..... 70
- 18. 유딧기 ..... 74
- 19. 에스테르기 ..... 78
- 20. 마카베오기 상권 ..... 81
- 21. 마카베오기 하권 ..... 85

## 4주 하느님의 선물

- 시서와 지혜서 ..... 90
- 22. 욥기 ..... 92
- 23. 시편 ..... 96
- 24. 잠언 ..... 100
- 25. 코헬렛 ..... 104
- 26. 아가 ..... 108
- 27. 지혜서 ..... 112
- 28. 집회서 ..... 116

## 5주 하느님의 사람

- 예언서(활동연대순) ..... 120
- 29. 아모스서 ..... 122
- 30. 호세아서 ..... 126
- 31. 이사야서 ..... 130
- 32. 미카서 ..... 134
- 33. 예레미야서 ..... 138
- 34. 애가 ..... 142
- 35. 바룩서 ..... 146
- 36. 나훔서 ..... 150
- 37. 하바꾹서 ..... 154

## 6주 희망

- 38. 스바니아서 ..... 157
- 39. 에제키엘서 ..... 160
- 40. 하카이서 ..... 164
- 41. 즈카르야서 ..... 167
- 42. 오바드야서 ..... 171
- 43. 요엘서 ..... 174
- 44. 요나서 ..... 178
- 45. 말라키서 ..... 182
- 46. 다니엘서 ..... 185

- 부록 참고문헌 ..... 192

## 성경말씀 맛들이기 신약 성경 읽기표

추천사  
머리말

### 1주 초기 복음서

#### 신약 성경

- 1. 마르코 복음서
- 2. 마태오 복음서

### 2주 복음서와 사도행전

- 3. 루카 복음서
- 4. 사도행전
- 5. 요한 복음서

### 3주 사도 바오로의 서간

#### 사도 바오로의 선교여행과 서간 집필시기

- 6.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2
- 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2
- 10.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 11.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 4주 사도 바오로와 옥중서간

- 12.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13.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14.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 15.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옥중서간)

### 5주 가톨릭(공동) 서간

- 16.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 17. 야고보 서간(공동서간)
- 18. 베드로의 서간 1, 2(공동서간)
- 20. 유다 서간(공동서간)

### 6주 요한계 문헌과 사목서간

- 21. 요한의 서간 1, 2, 3
- 24. 요한 묵시록
- 25.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1, 2(사목서간)
- 27. 티토에게 보낸 서간(사목서간)

### 7주 일일 성경 피정

부록1 신약 성경 연대기

부록2 신약 성경 소제목과 장절

부록3 참고문헌

## 구약 성경

### 1)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biblion/testamentum)

하느님께서 영을 보내시어 성경을 쓰는 작가들에게 그때 그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등의 생각을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그러한 생각과 비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상기하고 그 상기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다시 또 그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 일어나는 문제들에 적용함으로써 성경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대개 히브리어와 아람어(유배 이후)로 쓰였습니다(유다 교포 공동체를 위하여, 70명의 학자가 70일 동안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LXX) 성경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식민지 그리스 언어인 코이네(Koine)로 쓰였습니다. 개신교와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제2경전)의 히브리어 원본이 콤파 공동체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 2) 구약 성경의 시대구분

(1) 태고사와 성조시대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 노아 이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과

요셉의 성조사

- (2) 이집트 탈출시대(기원전 1250년경) 이집트 노예 해방과 시나이 산 계약의 40여년
- (3) 약속의 땅에 정착시대(기원전 1250-1200년경) 하느님 약속의 실현-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점령과 땅 배분
- (4) 판관시대(기원전 1200-1020년경)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 시대 전까지의 12판관(구원자) 시대
- (5) 왕정시대(기원전 1020-932/922년경)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운 사울과 민족의 통일을 이룬 다윗 그리고 성전을 건립한 솔로몬 왕
- (6) 왕국과 민족의 분열시대(기원전 922-722/587년경) 수도 사마리아의 10지파로 구성된 북 이스라엘(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예언자 활동시대)과 수도 예루살렘의 유다와 벤야민 두 지파로 구성된 남 유다(이사야, 미카, 나훔, 예레미야, 하바국, 말라키, 다니엘 예언자 활동시대)로 분열
- (7) 유배시대(기원전 586-538년경) 3차에 걸친 70년간의 포로 유배 생활(에제키엘과 제2이사야 예언자 활동시대)
- (8) 귀환시대(기원전 538년경) 키루스의 칙령으로 귀환(하카이, 즈카르야, 말라키 예언자 활동시대)

### 3) 구약 성경의 책들

- (1) 모세오경의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에 이르기까지 성조들의 역사를 다루고,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으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정착합니다. 탈출기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한 뒤 거대한 백성이 되자 이집트인들이 정치적 위협을 느껴 히브리인들을 압박하고 인종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서는 모세를 뽑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하고 십계명을 주어 하느님 백성의 길을 가르치고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레위기는 사제가문 ‘레위’ 부족과 거룩한 의식에 관한 법령들과 규정들을 기록합니다. 민수기는 지파와 가문별 호구조사를 하게 하고 해방절을 지낸 후 하느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육하여, 성숙한 종교적 자세, 곧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십니다. ‘둘째 법’이라는 뜻의 신명기는 모세가 앞의 책들에서 말한 중요한 규정과 법들을 다시 강조하면서 계약을 충실히 지킬 것을 다짐시킵니다.

(2) 역사서의 여호수아기는 약속된 땅을 정복하고(1-12장),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지리서(13-21장)입니다. 판관기는 유대인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서 판관들을 임명하셔서 구해 주심을 기록하고, 이교도 신분으로 다윗의 조상이 된 룯기는 판관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엽니다.

사무엘기에서 이스라엘은 대사제 사무엘이 기름부어 세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중앙집권 체제 하의 통일국가를 이룹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사후 분열된 왕국의 멸망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이스라엘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성전과 국가를 재건합니다. 유배지에서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느님과 율법에 충실했던 두 인물에 관한 토빗기와 영웅적인 여주인공이 백성을 구하는 유딧과 에스테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항전을 그린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습니다.

(3) 시서와 지혜서는 150편의 찬양과 탄원 및 교훈 시편으로 시작하며, 읊은 무죄한 이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책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 하느님을 만나는 영적 성숙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도덕 규범과 행동 수칙이 될 금언들을 하나로 엮었고, 비관주의적인 표면 뒤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고무하는 코헬렛 그리고 하느님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번뇌와 불행을 노래하며 하느님과 일치하게 된 깊고도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는 아가서가 나옵니다.

(4) 예언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그린 이사야, 예레미야(와 애가 및 그의 비서 바룩), 에제키엘, 다니엘의 네 대예언서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쿱, 스바니야, 하깨이, 즈카르야, 말라키의 열두 소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 4) 구약 성경의 주제

(1) 계약 -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 모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충실성과 관계없이 당신 계약에 충실하셔서 거듭 용서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 집니다.

- (2) 아들 -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초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여인의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쳐졌으나 양을 바치고 살아난 이사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미리 준비한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 삼손,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영원한 왕국을 위해 새로 태어날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이사 7,14; 9,5-6 참조).
- (3) 죄와 징벌 - 히브리인들은 적들에게 패배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충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자유를 되찾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4) 공동체 -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셨고,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어머니였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공동 운명체를 새기고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은 선택된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고 관계를 맺으신 사실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보존하고 있으며,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라 하고, 히브리인들은 토라(율법서)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과 성취라는 단일한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경에는 약속에서 성취로 향하는 하나의 역사로 보는 야훼계(J)와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하는 엘로힘계(E) 전기 전승들이 있고, 사제들이 제의를 복구하려는 사제계(P)와, 율법을 강조하는 신명기계(D) 등의 후기 전승이 있습니다.

오경은 역사와 동시에 율법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고 보호하셨으며 또 어떻게 기적적인 운명을 향해서 이끄셨는지 말해 줍니다. 율법은 한 민족을 택하시어 당신 모습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교육이며, 이 백성의 종교적인 사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경 안의 모든 법들의 근간은 '십계명'(탈출 20; 신명 5)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의 생활방식을 반영한 '계약 법전'(탈출 20,22-23,33 '계약의 책'), 요시아 왕 때 발견된 '신명기 법전'(신명 12-26장),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룩해야 한다는 '성결 법전'(레위 17-26장 '성화법', '신성 법전'), 성소와 제사에 관한 '사제 법전'이 있습니다(레위 1-16장 '사제적 법률').

# 1. 탈출기

## 집필 동기와 목적

탈출기는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첫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며 '해방자 하느님' (탈출 12,1-14)을 만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향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사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도구,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십계명과 계약법전을 주어 하느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해방자 하느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천막에서 현존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3; 13,20-22)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느님께서

신들을 부모처럼 낳아주신 '창조주 하느님' 이시기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런 하느님께서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주시리라는 '구원자 하느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 처럼, 하느님께서 한 무리 사람들의 실존에 개입하셔서(4,31) 자유 속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께서 마련하신 나라로 불러모으신다는 기본적인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탈출 사건은 하느님의 백성을 탄생시키고,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고, 오늘도 계속되며, 영원한 해방의 전망을 연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스라엘이 수행한 이집트 탈출의 완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파스카'로 이해했습니다(루카 22,14-20; 요한 13,1-3; 19,36). 다른 본문(요한 6; 1코린 5,7; 10,2-4)들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려고 만나, 구름, 바다 횡단,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 누룩 없는 빵 등의 낱말들을 사용합니다.

## 구성과 내용(해방을 통한 하느님의 드러내심과 계약 체결)

1. 구원과 해방의 역사(탈출 1,1-18,27)
  - 1) 탈출 준비(1,1-12,36)
  - 2) 탈출(12,37-15,21)
  - 3) 광야(15,22-18,27) 광야를 건너 시나이 산으로
2. 법률(탈출 19,1-40,38)
  - 1) 시나이 계약과 갱신(탈출 19,1-24,18) 시나이 산의 십계명과 법률



- 2) 성소와 성막과 성궐과 제사 전례 지침(25,1-31,18)
- 3) 계약의 위반과 갱신(32,1-34,35) 금송아지와 새 십계명
- 4) 전례 지침이행(35,1-40,38) 성막 건축과 봉헌

**말씀 모세의 소명과 탈출(탈출 3,7-12; 14,21-22)**

3<sup>7</sup>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sup>8</sup>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sup>9</sup>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sup>10</sup>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 <sup>11</sup>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sup>12</sup>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14<sup>21</sup>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서는 밤새도록 거센 섯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sup>22</sup>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고통과 어려움을 모른 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끔은 섭섭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려면 좀 가볍게 내려주시고 빨리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대신 아파해 주시고, 우리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라도 하려고 애쓰시며, 힘을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3. 세상 죄악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까? 주로 어떤 유혹과 함정에 갇힙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 굴레에서 건져주신다고 느낍니까?

## 2. 창세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창세기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시는 하느님 활동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을 뽑아 증인으로 세우시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주신 업적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전 1000-950년경 다윗 왕조 시기에 쓰기 시작해서, 기원전 6세기경 유배 후 귀향한 사람들이 종합 정리했다고 추정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조들을 '선택' 하십니다. 그 선택은 인간 각자의 뚜렷한 공과와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

여 이루어집니다(창세 12,1-2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백성들과의 '약속'을 통해 각 세대 전승자들에게서 쇄신되면서, 하느님과 민족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하느님의 '계약'은 부르심(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인간을 계약의 파트너로 초대하시지만, 인간의 계약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하느님 자신의 계약에 충실하기에 은약이라고 부릅니다. 성조들의 부르심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그 옛날 성조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구성과 내용

1. 천지창조(태고사) 1-11장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원역사'라고도 부릅니다.
  - 1) 천지창조와 죄의 기원(원죄) 이야기(창세 1,1-3,24)
  - 2) 카인과 아벨(공동체의 범죄) 이야기(창세 4,1-5,32)
  - 3)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창세 6,1-10,32)
  - 4) 바벨탑 이야기(창세 11,1-9) 인류의 도전과 반역
2. 성조들의 역사(성조사) 12-50장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족장사'라고도 합니다.
  - 1) 아브라함 이야기(창세 12,1-25,18)
  - 2) 이사악 이야기(창세 26장)
  - 3) 야곱 이야기(창세 25,19-34; 27,1-36,43)
  - 4) 요셉 이야기(창세 37,1-50,26)



**말씀 요셉의 반성-하느님 안에서 되돌아봄(창세 45,3-9)**

45 <sup>3</sup>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sup>4</sup>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sup>5</sup>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sup>6</sup>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받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sup>7</sup>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sup>8</sup>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sup>9</sup>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편애와 이에 대한 형제들의 시기에서 비롯된 희생양이 아니라, 하느님 구원사업의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성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게 된 요셉은 자신을 저버린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피해를 당해 망가진 영혼과 피해를 줌으로써 발목이 잡힌 우리 영혼을 상처와 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악의 세력에서부터 해방시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형제를 화해시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한 사람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축복은, 축복 받은 인간이 자신에게 내려진 하느님 축복의 신비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 축복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람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례 때 세례명을 새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을 넘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3.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하느님의 시각 안에서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미리 준비된 것으로서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과거 중에 억울하고, 슬프고, 손해 보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하느님의 시각 안에서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나의 성숙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건이 있습니까?

### 3. 레위기

#### 집필 동기와 목적

레위기의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창세 29,34)로 그의 지파는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맡습니다(민수 3,5 이하). 사제들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유배 이후 예언현상은 사라져가고 왕정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사제직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가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사제들은 레위기를 집성합니다.



하느님과 통교를 이루는 제사 중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와 용서를 얻기 위한 속죄제와 보상제 그리고 피를 통한 사죄의 희생제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사입니다. 사제는 제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합니다. 사제와 사제적 백성은 부정과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와 보상제, 희생제사와 사제직이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레위기는 자신들이 거행하는 경신례를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를 신명기 6,4-5절에 나오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제시하십니다(마태 22,39; 마르 12,31; 루카 10,27; 로마 13,9; 갈라 5,14). 그리고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레위 19,17), 이방인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34)는 계명도 적용하십니다.

#### 구성과 내용

1. 제사와 봉헌에 관한 규정(레위 1,1-7,38) 제사들의 종류와 규정
2. 사제에 관한 규정(레위 8,1-10,20) 사제직의 중개 및 제사 규정
3. 정결례에 관한 규정(레위 11,1-16,34) 16장 대속죄일(정결, 안식, 고행의 날-구약 성경의 성금요일)
4. 성결법전-이스라엘 백성의 성별에 관한 규정(레위 17,1-26,46) 25장 안식년과 희년(속량자 고엘)
5. 서원과 십일조 규정(레위 27,1-34)

### 말씀 거룩한 백성과 안식년 및 희년(레위 19,1-4.18; 25,1-2. 6-13)

19 <sup>1</sup>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sup>2</sup>“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sup>3</sup>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sup>4</sup>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sup>18</sup>너희는 동포에게 양값음하거나 양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25 <sup>1</sup>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sup>2</sup>“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sup>6</sup>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sup>7</sup>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sup>8</sup>‘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야 하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아홉 해가 된다. <sup>9</sup>그 일곱째 달 초월할 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sup>10</sup>너희는 이 오십 번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

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sup>11</sup>이 오십 번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sup>12</sup>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sup>13</sup>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사제적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늘 죄악의 유혹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사도로 삼으시기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리며 도우심을 청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미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께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납니까?
3. 주님의 사제 백성이 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주님께 중개하겠습니까?
4. 희년의 정신을 삼시다. 누가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 4. 민수기

### 집필 동기와 목적

고대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민수기의 첫 단어인 ‘와이다베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였다가 요즘은 ‘브미드바르’-광야에서; 그리스어 ‘아리스모이’-숫자들,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는 ‘누페리’-숫자라고 부릅니다. 장정(1,20-47)과 성소 집무자(3,14-51), 제단 봉헌 예물(7,10-88), 2번째 장정 수 조사(26,1-51)등 숫자들이 자주 거론되기 때문



이 자주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시나이 광야(1,1)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기(36,13)까지 광야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공동체가 조직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 곳에 계속 정착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 백성이고, 하느님 외에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떨어져 살며, 형성 과정 중의 민족이라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면서도 계속 하느님께 부르짖고 속을 썩이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 따로 떼어놓아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오늘날 민수기를 통해 교회는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며, 죄를 씻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초대받습니다.

### 구성과 내용

1. 시나이 산에서 출발 준비(민수 1,1-10,10) 행군준비로 첫 번째 인구조사(1,1-5,4)를 하고, 두 번째 파스카를 지낸 후 시나이 산을 출발(9,1-10,10)
2. 시나이 광야에서의 40년(민수 10,11-21,35) 광야에서의 불평과 모반, 불신 속에서 40년 동안 하느님 백성으로서 양성
3. 모압 광야에서(민수 22,2-36,13) 발라암의 예언과 우상 숭배(22,2-25,18),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의 분배(26,1-36,13), 모세의 퇴임과 후계자 여호수아 임명(27,12-23)

### 말씀 나지르인과 레위인의 봉헌(민수 6,1-4; 8,14-19)

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sup>2</sup>“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

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sup>3</sup>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sup>4</sup>봉헌 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 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8 <sup>14</sup>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sup>15</sup>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여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sup>16</sup>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sup>17</sup>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sup>18</sup>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sup>19</sup>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 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요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만한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듯한 모범을 보일만한 것도, 특별히 희생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오히려 신자 아닌 사람보다도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생각합니다. 남 앞에 드러나고, 활동적이며,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기도하는 내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 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작은 노력과 재질이 필요한 누군가와 나를 함께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때 나는 주님의 향기를 피우기 시작하리라.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3. 주님께 바쳐진 나지르인과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바쳐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 나누어봅시다.

## 5. 신명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신명기는 전체가 신명기계 전승으로 이루어졌고, 탈출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법전’ 이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의 총정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담겨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구약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여라.’ 둘째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 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라.’ 셋째는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준 계명과 율법과 규정들을 지켜라.’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곧,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하나의 성전’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며 ‘하나의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29장 28절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주 우리 하느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의 신비는 오묘하여 잘 알 수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알려 주셔야 알 수 있지만, 알려 주시는 것을 이름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신명 6,4) 이 구절은 성소에서의 일치와 율법과 백성의 일치가 담겨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구원의 사건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결실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존중하라는 법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백성의 일치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 구성과 내용

1.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회고와 권고(신명 1,1-4,43)
2.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과 법령(신명 4,44-28,68)
3. 하느님께서 제안하시는 축복과 저주(신명 29,1-30,20)
4. 모세의 축복과 죽음(신명 31,1-34,12)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가난한 이를 보호하라  
(신명 6,4-9; 15,7-8. 10-11; 24,17-22)

6 <sup>4</sup>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



이시다. <sup>5</sup>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sup>6</sup>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sup>7</sup>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둬 들려주고 일러 주어라. <sup>8</sup>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sup>9</sup>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놓아라.

<sup>15</sup>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sup>8</sup>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 <sup>10</sup>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sup>11</sup>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sup>24</sup> <sup>17</sup>“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sup>18</sup>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sup>19</sup>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려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

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sup>20</sup>너희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sup>21</sup>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sup>22</sup>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은총에 감사드리는 것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또 다시 사회와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고,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3.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한 이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 역사서

### 1) 역사서

역사서에는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계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배를 가서 선조들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율법준수 여부로 평가하면서(신명기 29장), 가나안 진입(기원전 1220년경)에서부터 남부 유다의 멸망(기원전 586년경)까지의 600년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당신 백성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스러운 응답을 하는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징벌하셨고 바로잡아 주셨는지 말합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들이 역사를 예언자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현재와 미래에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전기)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역대기계 역사서는 아담에서부터 에즈라·느헤미야 시대의 유다주의 생성에 이르는 전 역사를 편집해 놓은 ‘역대기 상·하’, ‘에즈라기·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딧’, ‘에스테르’, ‘마카베오 상·하’입니다.

### 2) 바알

반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배우면서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할 때는 주 (야훼) 하느님께,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바알신에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바알신은 풍요를 꿈꾸는 물질만능주의의 세계 질서 안에, 삶의 필요와 성공을 보장받으려는 탐욕주의자들 안에 살아있습니다.

### 3) 왕정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과 함께 탈출한 후 여호수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지파) 단위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공동 위험이 닥치면 하느님께서 한 사람에게 영을 내려 판관으로 세우시고 그의 인도로 일종의 연맹체로 함께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다른 나라처럼 고정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청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된 사울(기원전 1030-1010)은 하느님께 충실치 않아 탈락하고, 다윗(1010-970)이 선택되어, 하느님께서 ‘다윗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역대 17,12)고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의 국가신학이 됩니다. 솔로몬(972-933)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지만, 아들 대에 북 이스라엘(932/922-724)과 남 유다(932/922-587)로 분열되고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고 유배잡니다.

예언자들은, 왕들의 불충실 때문에 야기된 국가의 파멸을 넘어, 다윗 후손의 이상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의 후손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새로운 다윗이며,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즉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자이시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 되십니다(마르 12,37 참조).

## 6. 여호수아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 땅이 이미 열두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기원전 10세기인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산악지방에 살면서, 가나안인들과 공존하였습니다(여호 5,63; 16,10; 17,12,18 참조). 그런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예리코 성이 있던 지층대를 탐사해보니 거기에는 아예 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자손’ (탈출기에서 이루어짐)과 ‘땅’ 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음을 ‘종교 의식’, ‘전쟁 전례’ 의

형태를 빌어 설화적으로 썼습니다.

땅은 당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과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실성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가시적 보증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졌지만, 동시에 늘 새롭게 정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땅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 주어진 자신의 삶을 되새기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 구성과 내용

1. 가나안의 요르단 강 서편 정복(여호 1,1-12,24) 준비(1,1-5,12)와 전쟁(5,13-12,24)
2. 땅의 12지파 분배(여호 13,1-21,45) 땅의 분할(13-19장)과 도피성읍(20-22장)
3. 여호수아의 유언과 스켄 계약(여호 23,1-24,33) 고별 연설(23장)과 스켄 집회(24장)

###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여호 5,10-12; 6,1-5,15,20-21)

5 <sup>10</sup>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sup>11</sup>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



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sup>12</sup>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6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sup>2</sup>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임금과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sup>3</sup>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sup>4</sup> 사제 일곱 명이 저마다 숫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궤 앞에 서라. 이렛날에는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일곱 번 돌아라.<sup>5</sup> 숫양 뿔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sup>15</sup>이렛날이 되었다.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일곱 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일곱 번 돌 것이다.

<sup>20</sup>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sup>21</sup>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집착이나 탐욕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주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지난 과오에 대한 용서를 청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3.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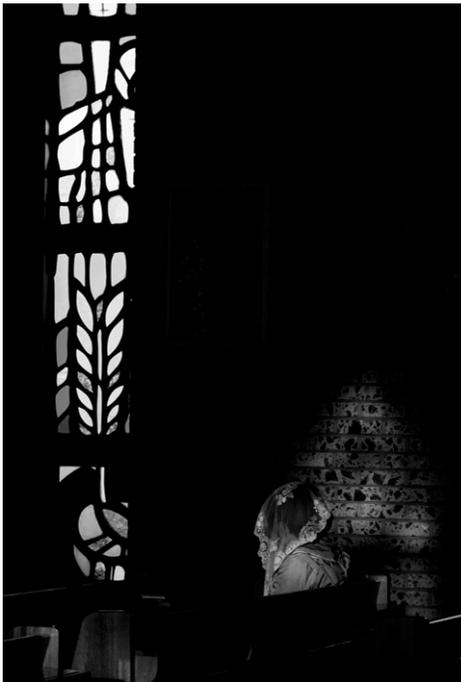
## 7. 판관기

### 집필 동기와 목적

판관기는 기원전 1200년경 가나안에 정착한 때부터 1020년경 왕정이 출현할 때까지, 아직 정치적인 통일성을 확립하지 못한 열두 지파의 동맹이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서로 적대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친근한 관계를 맺는 12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영을 내려 판관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판관 3,9.31; 6,15.36-37; 10,1.13). 또 모세처럼 하느님의 판정을 내리게 하십니다.

판관기의 네 단계 신학적 틀은 ‘죄-벌-회개-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느님의 징벌을 불러오지만,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의 회심은 구원자의 파



견을 가져온다는, 신명기계 신학입니다.

판관기의 주인공들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판관기에서 판관이 되는 조건은 오히려 인간의 잘잘못과는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이끄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을 받은 지도자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내셔서(3,10; 6,34; 11,29; 13,25; 14,6.19; 15,14) 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내가 나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하느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판관들 이야기에 거듭 나옵니다.

### 구성과 내용

1. 가나안 정복 이야기(판관 1,1-2,5)
2. 이스라엘을 구원한 판관들의 역사(판관 2,6-16,31)
3. 부록-레위인과 얽힌 두 이야기(판관 17,1-21,25)

### 말씀 삼손이 하느님의 힘을 받아 백성들을 구하다 (판관 13,1-5; 16,23-24,28-31)

13 <sup>1</sup>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마흔 해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 버리셨다. <sup>2</sup>그때에 초르아 출신으로 단 씨 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sup>3</sup>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sup>4</sup>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sup>5</sup>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다.”

16 <sup>23</sup>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sup>24</sup>백성도 그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 땅을 망쳐 놓은 자 우리를 많이도 살해한 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sup>28</sup>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 이 한 번으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sup>29</sup>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

양의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서, 기둥 하나에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sup>30</sup>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sup>31</sup>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주검을 들고 올라가서,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사제(사제 백성)로 불러주심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보나 자격 면으로 보나 감히 분에 넘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조차 힘든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휘감아 이끌어 주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내가 원해서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만,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3.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 8. 룻기

### 집필 동기와 목적

히브리 성경에서 룻의 이야기는 ‘커투빔(성문서)’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말 번역본인 칠십인역과 라틴말 성경은 룻기를 판관기 다음에 배열하는데, 이는 아마도 룻 1,1의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라는 역사적 배경에 관한 언급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신앙심과 효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외국 여자인 다윗의 증조모를 본보기로 상기시킵니다. ‘레비르 결혼’으로써 주님의 의하여 섭리적으로 인도된 이 부인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가문, 더군다나 다윗의 가문으로 맞아들여집니다.

룻기는 기원후 시대에 유대인들의 주요 축제 때 봉독되었던 다

섯 개의 ‘축제 두루마리’ 곧 축제 오경(룻기-오순절, 수확절, 맥추절: 초여름 5-6월/아가-파스카, 과일절, 유월절: 봄 3-4월/아가-성전 파괴일:대속죄일, 성금요일, 여름 7-8월/코헬렛-초막절: 가을 9-10월/에스테르-푸림절: 겨울 2-3월)의 하나입니다. 랍비들은 룻을 개종자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다.’(룻기 2,12 참조)라는 표현이 유다교로 개종함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룻기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룻기는 주님의 ‘섭리 이야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의 원 주인공은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1,8-9.13.21; 2,12.20; 3,10; 4,11.13-14 참조).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한 늙은 여인, 특히 외국인 과부와 당신 사이의 개별적 역사를, 다윗의 탄생을 통하여 당신 백성과의 역사로 수렴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룻과의 역사를 당신과 인류 사이의 구원 역사로 끌어올리십니다(마태 1,1-17).

### 구성과 내용

1. 룻의 결단(룻기 1장) 타향살이의 기근(1,1-5),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향(1,6-22)
2. 이삭 줍는 룻(룻기 2장) 룻의 효성스런 생활
3. 룻과 보아즈의 만남(룻기 3장) 나오미의 배려
4. 보아즈와의 혼인(룻기 4장) 고엘 역할의 보아즈와 룻의 결혼 그리고 대를 이음



**말씀 룻을 보아즈가 구해주다(룻기 2,14-16.20; 4,3-6.13,17)**

2<sup>14</sup>끼니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확꾼들 옆에 앉자 그는 볏은 밀알을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sup>15</sup>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릿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sup>16</sup>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줍도록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sup>20</sup>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4<sup>3</sup>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sup>4</sup>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겨레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들이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 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sup>5</sup>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

지 위에 세워 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sup>6</sup>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sup>13</sup>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sup>17</sup>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2장 16절에서 보아즈는 추수할 때에 주인 측이 가난한 이들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한 번 지나간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줍지 말라고 한 계명을 두고, “아예 이삭을 빼내어 흘려주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웃들과 나눌 때마다, 바라는 것보다 더 넉넉히 얹어주려고 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늘 부족하게 나누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나는 어떻게 형제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3.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고엘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 9. 사무엘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사무엘은 판관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대판관으로서 또는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또는 선견자로서, 예언자의 전 모습으로서 미리 하느님의 뜻을 보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느님이다’ 또는 ‘하느님의 이름이다’ 라는 뜻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기에서 왕정이 도입됩니다. 사울왕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



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다윗왕은 하느님의 뜻을 따랐기에 대대로 축복받은 집안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느님을 따르려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보살피 주십니다. 예언자들(사무엘, 나단)은 이스라엘에서 임금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왕들에게 일

깨워 줍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다 부족한 인간이지만 ‘죄악과 그 후속 처리’ 면에서, 사울은 하느님의 가호를 받아 자신의 이익으로 돌린 반면, 다윗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관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하느님 백성의 의식’ 관점에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대신 지내서라도 전쟁을 이겨야겠다고 하는 반면, 다윗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실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는 것이지, 결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성, 공동 운명성, 일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충실성’ 관점에서,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기회가 되어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 구성과 내용

1. 엘리와 사무엘(1사무 1-7장) 사무엘의 소명(1,1-4,1)과 계약 이야기(4,2-7,17)
2. 사무엘과 사울(1사무 8-15장) 왕정 수립(8-12장)과 하느님의 영이 떠난 사울(13-15장)
3. 사울과 다윗(1사무 16-31장) 다윗의 등장(16-18장), 다윗의 망명 생활(19-31장)
4. 다윗 왕조(2사무 1-10장) 임금이 된 다윗(1,1-5,5), 성도 예루살렘(5,6-6,23), 다윗 왕권의 확립(7,1-10,19)
5. 다윗의 말년(2사무 11-20장) 다윗의 범죄(11,1-12,31), 다윗 후계 다툼(13,1-20,26)
6. 부록(2사무 21-24장)

### 말씀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부르시다(1사무 16,1.5c-13)

16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sup>5</sup>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sup>6</sup>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sup>7</sup>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sup>8</sup> 다음으로 이사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sup>9</sup> 이사가 다시 삼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오.” 하였다.<sup>10</sup> 이렇게 이사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sup>11</sup> 사무엘이 이사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sup>12</sup> 그래서 이사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sup>13</sup>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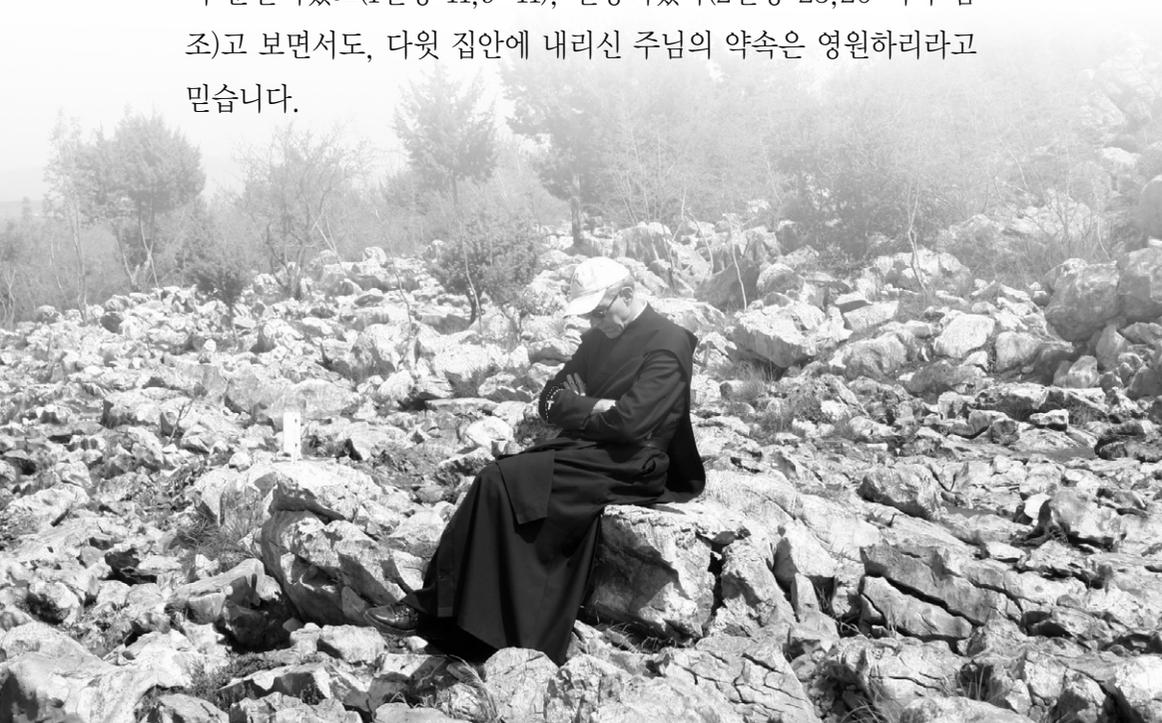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의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 때문에 늘 존중하려고 하면서도, 자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활동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공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조바심과 한계성을 넘어 주님께서 몸소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께 겸손되이 청하며 다시 주님의 도구와 종이 되어 살립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서 내가 나아갈 바를 나누어봅시다.
3.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새롭게 눈떠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 11. 열왕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열왕기는 임금들과 백성들에 대한 신학적 반성입니다. 신명기계와 예언 전승은 주님의 규정을 지키는 인물을 참다운 임금으로 여깁니다. 그는 주님의 법과 계명과 관습과 명령을 따르고(1열왕 2,3), 백성이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1열왕 3,8-9 참조), 지혜와 정의로 다스리고 동시에 백성을 '섬깁니다.'(1열왕 12,7) 열왕기 저자는 하느님의 종(1열왕 3,6; 8,24; 11,13 등) 다윗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충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이 분열되었고(1열왕 11,9-11), 멸망되었다(2열왕 23,26 이하 참조)고 보면서도, 다윗 집안에 내리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열왕기는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특별한 자리를 부여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성읍이며(1열왕 8,12),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어떠한 생존환경에서도 하느님과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며(탈출 33,7의 '만남의 천막'과 2열왕 22-23의 요시아 종교개혁 참조),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경신례 생활에서 중심이 되고, 레위지파 사제들만이 제사를 바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분(율법과 규정)께 순종할 것을 호소하고, 그분께서 충성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 정치도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한 분 '임금님'께 속한다고 보고 깊이 관여합니다(이사 6,5; 44,6; 즈카 14,16).

### 구성과 내용

1.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1열왕 1-11장) 기원전 961년 솔로몬 등극에서 922년 남북왕국 분열
2. 북 이스라엘 왕국 멸망(1열왕 12장-2열왕 17장) 아합왕 즉위(1열왕 12,1-16,34), 아합왕과 예언자 엘리야(1열왕 17,1-22,54), 예언자 엘리사의 등장과 예후의 반란(2열왕 1,1-11,20), 722년 아시리아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인을 이주시킴(2열왕 12,1-17,41).
3. 남 유다 왕국 멸망(2열왕 18,1-25,30)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587년 바빌로니아의 침공과 유배

### 말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몰락(2열왕 17,6-8.12.15 7.18-20.22-23)

17 <sup>6</sup>마침내 호세아 제구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잔 강 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sup>7</sup>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sup>8</sup>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 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sup>12</sup>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sup>15</sup>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sup>18</sup>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sup>19</sup>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 낸 풍속을 따랐다. <sup>20</sup>그리하여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sup>22</sup>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sup>23</sup>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느냐의 여부를 왕과 민족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라고 하시며,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고 성취했느냐보다 얼마나 주님께 충실했는지를 묻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내가 생각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는 데 더 열중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 계획과 내 방법보다 주님의 말씀과 방법이 옳다고 여겨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요한 6,29)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내 삶에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한 일을 성취하는 데 우선하여 주님의 은총과 형제들과의 일치를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느 일이었습니까?
3. 우리 양심의 요구나 주님의 가르침보다, 우리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다가 낭패한 적이 있습니까?

※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를 마치고 역대기계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 13. 역대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역대기는 인간 창조에서부터 바빌론 유배 이후 키루스가 해방령을 내리는 기원전 5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책은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보충으로 여겨지며, 내용상 역대기-에즈라기-느헤미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봅니다. 역대기 문헌들의 편집 시기는 기원전 330-250년으로 보며,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이 예루살렘 성도와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거행되는 전례의 역사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로 유지되는 유다 왕국만을 합법적으로 보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국은 바알 숭배로 더럽혀진 분리주의 자들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이 훗날 귀향 후 에즈라·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재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에즈 4; 느헤 2,19-20; 4; 6).

역대기 신학관은 ‘신정(神政)’이라는 관점에서 흘러간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하느님의 왕국을 그 시대에 맞추어 재현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임금이신 하느님께 충성과 기쁨과 찬양을 표현하는 전례는 성도 예루살렘의 유일한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백성의 첫 번째 의무는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며,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하느님의 뜻을 따랐느냐의 여부로 해석합니다. 일례로, 므나쎄는 온갖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우상들을 치우고 성전을 정화시켰기 때문에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2역대 33) 반면 요시아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이집트 군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무모하게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했어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2역대 35)고 해석했습니다.

### 구성과 내용

1. 다윗의 족보(1역대 1,1-9,44) 아담에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족보, 레위 지파와 사울
2. 다윗의 통치(1역대 10,1-29,30) 다윗의 예루살렘 건설과 업적 및 전쟁(10,1-20,8), 성전 건축 준비와 제도 확립(21,1-29,30)
3. 솔로몬의 통치(2역대 1,1-9,31) 성전 봉헌
4. 왕국분열부터 북 이스라엘 멸망과 남 유다 멸망과 유배 및 귀환(2역대 10,1-36,23) 르하브암에서 아탈야 그리고 요아스에서 아하즈(10,1-28,27), 신앙 쇠신과 메시아 희망(29,1-36,23)

### 말씀 남 왕국 유다의 멸망과 유배 및 귀환(2역대 36,17-23)

36 <sup>17</sup>그리하여 그분께서 칼데아인들의 임금을 그들에게 올려 보내시어, 그들 성소의 집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도 처녀도, 나이 든 이도 노약한 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 그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sup>18</sup>칼데아 임금은 하느님 집의 크고 작은 모든 기물과 주님 집의 보물과 임금과 대신들의 보물을 모조리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sup>19</sup>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sup>20</sup>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sup>21</sup>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일흔 해를 채울 것이다.”

<sup>22</sup>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일년이였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sup>23</sup>“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우리 인생은 늘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안 풀리고 앞이 잘 안 보이며 힘겹기까지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외적인 요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희망을 두고 꾸준하고 충실히 나아갈 때 어느 새 우리는 봄기운을 느낍니다. 설령 오늘 여기서 그 봄꽃이 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꽃 피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5)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요즈음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주님과 함께 그 힘겨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렵니까?
3. 이국 땅 이민족의 왕 키루스가 이스라엘의 귀향을 가져다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움직이셨다고 고백할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 15. 에즈라기 · 느헤미야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본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유대인들이 기원전 538년에 바빌론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뒤, 한 세기가 넘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즈라기 · 느헤미야기는 ‘성전’ 과 ‘예루살렘 성읍’ 및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라는 세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기원전 4세기 말엽에서 3세기 중엽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집은 당신 백성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느님 현존의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징표입니다. 북 이스라엘인들도 참여하려고 하지만, 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분리주의자로 보고 참여시켜주

지 않자 적대감을 가지고 반대합니다(에즈 4).

바빌론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의 복구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서 윤택을 받습니다(느헤 1-2). 느헤미야는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유배를 감으로써 훼손된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회복하여 재개시킵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성전의 재건과 율법의 준수를 통해 하느님을 다시 따름으로써 공동체를 복구시킵니다.

### 구성과 내용

1. 귀향과 성전 재건(에즈 1,1-6,22) 키루스 칙령으로 인한 귀환과 성전 건축
2. 에즈라의 귀환과 개혁(에즈 7,1-10,43) 혼종혼 금지와 율법 준수
3.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느헤 1,1-7,72)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빈부격차로 인한 분열
4.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개혁(느헤 8,1-13,31) 율법 낭독과 참회(8-10장), 느헤미야의 개혁(11-13장)

**말씀 성전 재건과 에즈라, 느헤미야(에즈 7,11.25-26; 느헤 5,7-13)**

7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 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sup>25</sup>“에즈라, 그대는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의 하느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을 맡아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sup>26</sup>그대의 하느님 법과 임금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추방형, 재산 몰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하여라.”

5 <sup>7</sup>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sup>8</sup>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 간 유대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 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sup>9</sup>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sup>10</sup>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sup>11</sup>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꾸어 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

시오.” <sup>12</sup>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sup>13</sup>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 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매일, 매주 미사 드리고 기도하며 교회와 맡은 일과 이웃에게 가능한 한 충실하고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지, 어딘지 맘한 구석으로 허전합니다. 기쁨과 보람찬 과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마치 지루하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주님 사랑의 열정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설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맨 먼저 성전복구를 통해 민족의 통일성과 비전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의 건설과 쇄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갈구 등에 대해 나눔시다.

## 17. 토빗기

### 집필 동기와 목적

페르시아 키루스의 칙령이 내려 히브리인들이 귀향했지만,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팔레스티나는 페르시아의 한 주였다가,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제의 지배를, 알렉산드로스 대제 사후 한 세기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198년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 치하에서는 세금만 내면 되었지만, 175년 안티오코스 4세는 그리스 문명과 종교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직한 선민 사명이란 참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계시를 전달하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박해로 상당수 유대인은 신앙을 저버렸고, 신앙을 고수하려던 사람들은 숨겨

나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성경저자는 종교자유를 위한 마카베오 시대의 투쟁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신 선민 중에서 적어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에 끝까지 성실하신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가 쓰여집니다.

토빗기는 주변 이교도 세계의 지혜 문학 전통을 본받은 대중적 설화이자, 성경의 내용을 풍부히 담은 교훈적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734년부터 612년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유배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종교적 가르침으로, ‘아히칼의 지혜’라고 불리는 문학 작품에 근거를 두고 유배 이후 기원전 200년경에 쓰였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저자는 성조 사회들을 연상케 하면서 “하느님의 배려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을 두고, 혼인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하여 미리 확정된 계획 또는 끝에 가서야 밝혀지는 비밀을 성사시켜 가는 방식으로 글을 이어나갑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배 시대에 특히 페르시아의 영향 아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를 등장시키고, 토빗이 아들에게 해 준 충고(4,3-21; 14,8-11)를 통해 유대인이 이국 땅에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의인으로 살도록 하는 원칙(효도, 하느님 섬김, 자선, 이웃 사랑)을 담습니다.

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간으로서 한 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전승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충실과 가족들의 단결, 특히 부모



공경의 덕을 강조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고 공동체를 결속시켜 주는 방도로서 자선을 제시합니다. 자선은 그것을 행하는 이에게 보물이 되고 속죄가 되며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하느님께 충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특히 실망, 불안, 기쁨 등 갖가지 상황에서 올려지는 기도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 구성과 내용

1. 토빗의 시련과 기도(토빗 1,1-6,1)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과 일상을 통한 섭리
2. 토비야의 결혼과 시력을 되찾는 토빗(토빗 6,2-11,18)
3. 토빗의 찬미(토빗 12,1-14,15)

### 말씀 토빗 이야기(토빗 3,16-17; 11,15; 12,20-22)

3<sup>16</sup>바로 그때에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sup>17</sup>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 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 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야의 아내가 되게 해 주고 또 아스모 대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 주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 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야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토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 방에서 내려갔다.

11<sup>15</sup>“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야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12<sup>20</sup>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sup>21</sup>그제야 일어난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하였다. <sup>22</sup>그들은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으며 또 찬양하였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어려운 이들이나 하느님께 충실한 이들이 현실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 18. 유딧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유딧기는 일종의 ‘미드라쉬’(교화적 해설)로서 옛 이야기를 이용하여 종교와 율법과 성전과 관련하여 위협을 받는 동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습니다. 여주인공 ‘유딧’은 ‘유대인 여자’를 뜻합니다. ‘유다’도 히브리, 아람, 그리스 말에서도 여성이므로, ‘유딧’은 ‘유다’ 민족과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유딧기는 셈족 말 원문을 번역, 개작한 그리스어 본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섭리의 때와 정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13,14). 유딧 이야기는 인간의 야심과 관능, 공포에 대항하는 신앙과 용기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열정의 결과로 펼쳐집니다. 유대인을 위협하러 온 아시리아군 홀로페르네스를 물리치는 유딧의 계략은 정당방위입니다. 홀로페르네

스는 스스로의 욕망에 빠져 죽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고통이 죄에 대한 징벌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이며, 교훈이기도 합니다(8,25-27). 유딧은 자기 민족이 죄를 지어 당하는 벌이 아니기에, 백성의 구원과 거룩한 성읍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라는 부르심이라고 여기고(8,21-24), 이 몫을 선택합니다(13,20). 그리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고통을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배려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8,25).

### 구성과 내용

1. 유딧의 동포애(유딧 1,1-7,32)
2. 신앙의 승리(유딧 8,1-16,25) 유딧의 활약과 이스라엘의 승리

### 말씀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다(유딧 13,4-11,14,17-20)

13 <sup>4</sup>모든 사람이 홀로페르네스 앞에서 물러가고, 침실에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에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침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모든 권세의 하느님이신 주님, 이 시간 예루살렘의 영예를 위하여 제 손이 하는 일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sup>5</sup>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속 재산에 도움을 베풀고, 저희를 치러 일어난 적군들을 멸망시키려는 저의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sup>6</sup>이어서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맡에 있는 침대 기둥으로 가서 그의



칼을 집어 내렸다. <sup>7</sup>그리고 침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sup>8</sup>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두 번 내리쳐서 머리를 잘라 내었다. <sup>9</sup>그리고 나서 그의 몸뚱이를 침상에서 굴러 버리고, 단집을 기둥에서 뽑아 내렸다. 잠시 뒤에 유딧은 밖으로 나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기 시녀에게 넘겼다. <sup>10</sup>여종은 그것을 자기의 음식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 두 사람은 기도하러 다닐 때처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진영을 가로지른 다음에 그곳의 골짜기를 돌아서 배틀리아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그곳 성문에 다다랐다. <sup>11</sup>유딧은 멀리서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말하였다. “여십시오. 성문을 여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스라엘에 당신의 힘을, 적군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sup>14</sup>그러자 유딧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부수셨습니다.” <sup>17</sup>온 백성은 대단히 놀라서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일제히 말하였다. “오늘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섬멸하신 저희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sup>18</sup>이어서 우찌야가 유딧에게 말하였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 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라

오. <sup>19</sup>그대의 희망이 하느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요. <sup>20</sup>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겨레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파멸을 물리쳤소.” 그러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우리는 가끔 일이 잘 안 풀리면 축 처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느님께 섭섭함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딧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희망과 그 희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야 마는 하느님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지치고, 불편하고, 감당하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지치거나 주눅이 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희망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꿋꿋이 그리고 강건히 나아가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하느님께서 내 마음 속에 심어주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3.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이겨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 19. 에스테르기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1세기 팔레스티나에서 지내기 시작한 푸림절 축제(모르도카이의 날-2마카 15,36)에 대한 설화로, 박해에 처한 유대인들이 이교 신화를 탈신화하여 유다화시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호감을 두지 않고 동화시키려고 하기에(에스 3, 8 참조), 유배 중의 소수 민족 중의 하나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박해합니다. 하만에 의해서 모의된 유대인 말살도, 모르도카이에 의해서 조직된 '반-말살' 활동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반복적인 복수를 이어갑니다. 비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못박았지만 비유대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화해는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에페 2,14,16).

### 구성과 내용

1. 하만의 위협과 이스라엘의 조직적 대응(에스 1,1-9,19) 페르시아 고관 하만의 계략에 맞서는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 왕후
2. 푸림절 축제 거행(에스 9,20-10,3)

### 말씀 모르도카이의 기도(4,17②-⑩)

4 <sup>17②</sup>주님, 주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으며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면 당신을 거스를 자 없습니다. <sup>17③</sup>당신께서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놀라운 것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sup>17④</sup>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sup>17⑤</sup>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음은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sup>17⑥</sup>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 맞추었으오리다. <sup>17⑦</sup>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sup>17</sup>

⑧이제 주 하느님, 임금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소서! 저희를 멸망시키려 눈독을 들이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재산을 파멸시키려 저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sup>17</sup>⑨이집트 땅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속량하신 당신의 몫을 업신여기지 마소서. <sup>17</sup>⑩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없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살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는 이들의 입을 없애 버리지 마소서.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질 때 느낍니다. ‘아, 휴가나 피정을 다녀와야겠다.’ 그 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잡는 주제는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되새기면서, 자연스럽게 감사드리게 됩니다. 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심어주신 보이지 않는 희망을 이루어 나아가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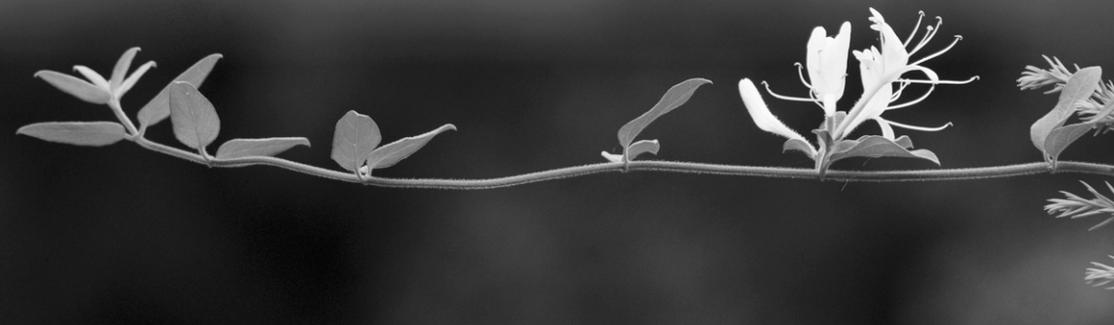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해 주고 존중해 줍니까?
3.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고 희생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 20. 마카베오 상권

### 집필 동기와 목적

마카베오 상·하권은 셀레우쿠스 4세 통치 말기인 기원전 176년부터 유다의 대사제 요한 히르카누스가 즉위하는 기원전 134년까지 반세기 역사입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유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되찾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75-164년) 말살하려던 종교의 자유를 되찾는 책으로, 상권은 그리스 말로 전해지고 하권은 원래 그리스 말로 쓰였습니다.

마카베오 상권은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 전인 기원전 10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고, 팔레스티나에 살던 유대인인 저자는 고대 역사 문헌들의 문체를 본뜬다. 상권은 계약과 율법에 충실하고, 하권은 성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또 목숨을 걸고 이교 풍습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마카베오 전쟁의 시작(1마카 1,1-2,70) 이교의 종교말살에 대항한 사제 마타티아스의 봉기
2. 유다 마카베오의 항쟁과 승리(1마카 3,1-9,22) 마카베오(망치, 주님의 표지)라는 별명을 받은 유다가 승전하고, 안티오코스왕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진 기슬레우월 25일(양력 12월 초순경)부터 8일 동안 지내는 '하누카(성전 봉헌 축제)'의 기원이 나옵니다.
3. 요나탄의 항쟁과 승리(1마카 9,23-12,53) 유다 이후의 동생 요나탄의 항쟁
4. 시몬의 항쟁(1마카 13,1-16,24) 함정에 빠진 요나탄의 형 시몬의 항쟁과 하스모니아 왕가 출범

## 말씀 마타티아스의 봉기(1마카 2,15-27)

2<sup>15</sup>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sup>16</sup>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sup>17</sup>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소. <sup>18</sup>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오.”

<sup>19</sup>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sup>20</sup>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오. <sup>21</sup>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sup>22</sup>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sup>23</sup>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sup>24</sup>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자를 쳐 죽였다. <sup>25</sup>그때에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 버렸다. <sup>26</sup>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sup>27</sup>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간직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 각 개인과 공동체 구원의 열쇠요 문이시기에, 흔들림 없이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가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목숨을 바쳐서까지 믿음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21. 마카베오 하권

### 집필 동기와 목적

하권은 안티오코스 4세의 즉위 전에 시작하여 유다 마카베오의 죽음 전의 내용을, 기원전 160년경에 쓴 키레네 출신 야손의 다섯 권을 요약했습니다. 저자는 목적론적 신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건을 하느님 뜻의 결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창조 신앙이라는 면에서 마카베오 하권 이전의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존재를 불러내시고, “빛이 생겨라” (창세 1,3)는 명으로 원초적 혼돈을 체계화 시킵니다. 훗날 지혜서도 “무형의 물질”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지혜 11,17-18). 마카베오 하권의 저자는 일곱 순교자 어머니의 입을 빌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드



셨다고 밝힙니다(2마카 7,28).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면에서 마카베오 하권의 저자는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발전시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의인들의 영혼이 누리는 영원한 행복만을 말하는 지혜서보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포함한 의인들의 부활을 가르치는 바리사이적 종말론을 펼칩니다.

중개 기도라는 면에서 마카베오 하권은 죽은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이들이 바치는 기도와 제사가 효력을 지니고(2마카 12,40-45), 또 반대로 오니아스와 예레미야처럼 죽은 의인들이 산 이들을 위하여 중개 기도를 해줄 수 있다(15,11-16)는 새로운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성인들의 중개 역할(전구기도)과 (연옥교리와 연관하여) 죽은 이들을 위한 산 이들의 기도도 인정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이집트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간과 대사제들의 타락(2마카 1,1-4,50)
2. 안티오코스 4세와 그리스화 운동으로 인한 종교박해와 순교자들(2마카 5,1-7,42)
3. 유다의 승리와 예루살렘 성전의 재봉헌(2마카 8,1-11,38) 하누카 축제
4. 재개된 박해와 부활 신앙(2마카 12,1-15,39) 전사자들을 위한 기도(연옥교리)와 부활신앙

## 말씀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2마카 7,1.9.14.18-23.27-30.37-38)

7<sup>1</sup> '그때에 어떤 일곱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 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sup>9</sup>마지막 숨을 거두며 (둘째가)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을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sup>14</sup>그(셋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sup>18</sup>그다음에 그들은 여섯째를 끌어내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오. <sup>19</sup>그러나 감히 하느님과 싸우려 한 당신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sup>20</sup>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 냈다. <sup>21</sup>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

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sup>22</sup>“너희가 어떻게 내 배 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 준 것도 내가 아니다. <sup>23</sup>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 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sup>27</sup>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붙잡히 여겨 다오. 나는 아홉 달 동안 너를 배 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세 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네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 왔다. <sup>28</sup>애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sup>29</sup>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네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sup>30</sup>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sup>37</sup>“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도 목숨도 내놓았소.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

리 민족에게는 어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재앙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오. <sup>38</sup>또한 우리 온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전능하신 분의 분노가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하여 끝나기를 간청하고 있소.”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30일 피정을 하면서, 성인들의 통공 묵상 주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마치 살아계신 듯 침대에 누워있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혼들과 이 땅의 영혼들의 통공과 구원을...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에게 천사를 시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것도 모자라 성인들을 통해 또 전구기도를 하도록 하시면서 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심에...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교회는 신앙고백문에서 ‘성인의 통공’을 고백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이들과 어떤 연결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 시서와 지혜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의 일원으로서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지닌 글을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집회 1,1 참조). 사제와 현인, 예언자들 그리고 왕실과 국가의 고문, 원로와 스승들이 현인으로서 지혜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금언과 격언 속담 등의 지혜문학적 민족의 슬기를 전수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처럼 종족과 종교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여 유다교화 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은 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창세 41; 탈출 7,8-9,12; 1열왕 10,1-13; 다니 2-4장).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자녀와 같은 공경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함이기예(잠언 1,7; 2,5; 9,10; 15,33; 욥기 28,28; 시편 111,10 등 참조), 하느님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우둔한 자이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구약의 문학사 안에서 지혜는 점차 의인화되어 갑니다(잠언 1,20-33; 8; 9,1-6).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로 보낸 그 무엇이 바로 의인화한 지혜이며, 그 지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내재하

신다는 맥락 안에서 이해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와 집회서를 지혜 문학으로 분류합니다.

현대는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삶의 풍요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상실감은 과학기술-물질 문명 그리고 그 바탕을 이루는 과학적 이성과 지식, 기술보다 물질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능력이 인간의 전부처럼 간주되고, 인간 판단의 절대적 가치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존중하며, 우리가 방치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더욱 중요한 가치들을 찾고 닦으라고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 공통의 진실과 진리를 추구했고 또 그에 비추어 현대 세계 안에서의 지혜를 찾도록 촉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구하고 찾는 마음, 곧 구도의 마음으로 지혜를 추구하며, 실천을 통해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 22. 욥기

### 집필 동기와 목적

욥기는 불의한 고통의 수수께끼나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곤경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올곧은 길을 걸으면 다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신들을 잡아온 바빌로니아 사람들보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욥기 저자는 예언자들과 시편 작가들의 전승을 이어받아 이해타산이 없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며, 숭고한 은혜에 헌신적으로 감사드리도록 합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겪는 것이 하느님의 잘못이며, 이 땅에는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이 없고(9,33), 자신의 무죄함과 선행을 인정해주길 바라지만 교만이라고 지적당하자,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있을 것이며(16,18-22), 훗날 하느님을 뵈게 해줄 것이며 구원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19,25-27).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욥신의 부활과 죽음을 이기실 ‘구원자’의 예시를 발견합니다.

욥이 윤리 도덕적인 죄는 없었지만, 하느님을 인간의 계약정의와 실용주의의 잣대로 판단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욥에게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40,8) 라고 물으셨고, 욥은 “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습니다.”(42,3) 라고 응답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고통받는 의인 욥(욥기 1,1-2,10)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 욥
2. 욥과 세 친구의 논쟁(욥기 3,1-31,40) 인과응보
3. 엘리후의 연설(욥기 32,1-37,24) 고통을 달게 받으라는 연설
4. 하느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욥기 38,1-42,6) 욥의 하느님 체험을 통한 잘못 고백과 뉘우침
5. 다시 얻은 삶(욥기 42,7-17)

**말씀 욥(1,12.20-22; 3,1-3.11; 4,1.7; 6,1-2.24-25; 7,7.18; 38,1-2; 40,7-8; 42,1-3)**

1<sup>12</sup>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sup>20</sup>그러자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sup>21</sup>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sup>22</sup>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3<sup>1</sup> 마침내 욥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sup>2</sup>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sup>3</sup>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sup>11</sup>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4<sup>1</sup>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sup>7</sup>“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울퉁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6<sup>1</sup> 욥이 말을 받았다. <sup>2</sup>“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 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 보았으면! <sup>24</sup>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sup>25</sup>바른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7<sup>7</sup>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sup>18</sup>아침마다 그를 살

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38<sup>1</sup>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sup>2</sup>“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40<sup>7</sup>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sup>8</sup>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42<sup>1</sup> 그러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sup>2</sup>“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서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sup>3</sup>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겪게 된 재앙이나 자신의 직접적인 선악과 관계없이 유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처지나 까닭 없이 당하는 부당한 압박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곤경이나의 십자가요 나의 기회인 것을 어찌 피하리오. 주님께 맡기고 쉽 없이 내 길을 걸어가렵니다.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 23. 시편

### 집필 동기와 목적

시편집은 히브리말로 ‘찬양가들’ 또는 ‘찬양가들의 책’이라 불리며, ‘찬양’은 할렐루야[= ‘야(휘)를 찬양하여라’]의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시편집은 1-41, 42-72, 73-89, 90-106, 107-150편의 5권이며, 각 권은 이른바 ‘종결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의 머리글에는 시편 작가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의 이름, 즉 모세, 솔로몬, 아삽, 코라의 후손, 헤만, 에단, 여두둔, 특히 다윗은 73개의 머리글에 나옵니다. 오늘도 시편은 주님의 기도에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축일 전례 때 사용하는 ‘찬양시편’(계약의 하느님을 향한 찬양시편, 하느님의 통치에 대한 노래, 성전과 순례자들의 노래, 군왕시편), 곤경과 고통 속에서 바치는 ‘탄원과 신뢰 및 감사의 시편’(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과 공동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간청드리며,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 고백), 역사적, 예언자적, 전례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지혜문학적 반성 등의 ‘교훈시편’이 있습니다.

### 말씀 주님은 나를 샅샅이 아시나이다(시편 139,1-18.23-24)

139 <sup>1</sup>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샅샅이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sup>2</sup>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sup>3</sup>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서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sup>4</sup>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sup>5</sup>뒤에서도 앞서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sup>6</sup>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sup>7</sup>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 <sup>8</sup>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 <sup>9</sup>제가 새벽놀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 <sup>10</sup>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 <sup>11</sup>“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 <sup>12</sup>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둠이 아니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 <sup>13</sup>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 <sup>14</sup>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 <sup>15</sup>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시다.
- <sup>16</sup>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 <sup>17</sup>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 <sup>18</sup>세어 보자니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닿았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 <sup>23</sup>하느님, 저를 살펴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 <sup>24</sup>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주눅하고 불안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잘못에 대해 일일이 탓하거나 큰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을 보면, 주님께서 진정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심을 느낍니다. 오히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번뇌 등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하시면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주님이 정말 좋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와 함께하시면서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저를 주님 사랑으로 휘감아 주시고 감싸주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시편 139편을 읽으며 내 인생의 굴곡에 함께하신 하느님을 묵상하고 나눔시다.
3. 마음에 와 닿은 시편 구절이 있습니까? 시편 작가의 마음으로 돌아가 시편기도를 바쳐봅시다.

## 24. 잠언

### 집필 동기와 목적

잠언집은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유래하는 잠언(사람이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왕정시대에 수집하기 시작해서 유배이후 주변의 지혜문학을 수용하여 완성했습니다. 지혜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자질입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도 동참하고(3,19-20; 8,22-31), 인간을 악과 죽음에서 보호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일어난 원초적인 사건(율법, 석판 위에 적힌 십계명의 부여) 역시 예언 사상과의 연계 아래 현인-교육자들에 의해서 실생활 속에 동화되고 전승됩니다. 이들도 예언자들처럼 가르침을 “마음의 판에”(3,3 참조) 새길 것을 촉구

합니다(3,3과 7,3을 예레 31,33과 비교).

잠언은 지혜에 대해, 첫째, “주님을 경외함”(9,10. 그리고 1,7과 15,33 참조)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이며, 둘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충실하며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부모를 보살피 드림이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이며, 셋째, 재산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며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이웃에게 사랑과 배려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사랑을 베풀며, 과음을 피함이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이며, 넷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인의 길’ 이라고 전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서언 및 지혜서(잠언 1,1-9,18)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피하라.
2. 솔로몬의 첫째 잠언집(잠언 10,1-22,16) 의로운 이의 생명나무와 주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샘
3. 현인들의 첫째 잠언집(잠언 22,17-24,22) 공동체의 실천적 교훈
4. 현인들의 둘째 잠언집(잠언 24,23-24,34)
5.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잠언 25,1-29,27) 율법을 따르는 상선벌악
6. 아구르의 잠언(잠언 30,1-14)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7. 수잠언(잠언 30,15-33) 숫자로 헤아린 지혜
8. 르무엘의 잠언(잠언 31,1-9)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내리는 교훈
9. 훌륭한 아내(잠언 31,10-31) 훌륭한 아내에 대한 칭찬



**말씀 지혜와 창조(잠언 8,22-31)**

- 8 <sup>22</sup>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 <sup>23</sup>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 <sup>24</sup>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 <sup>25</sup>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 <sup>26</sup>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 <sup>27</sup>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 <sup>28</sup>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 <sup>29</sup>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 <sup>30</sup>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 <sup>31</sup>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젊을 땐, 뭔가 하면 되는 것 같고 열정을 쏟는 만큼 결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인간 나 하나와 몇몇이 마음을 모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인간만이, 그것도 인간의 처세와 권모술수만 눈에 보이고, 현세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향연이 판을 친다고 여길 때마다, 보이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 주께서 열어주시고 펼쳐주실 그 때 그 순간에 내가 자격 없음이나 함량부족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께 내 앞길을 맡기고 꾸준히 채우고 준비하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 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는 처세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 25. 코헬렛

### 집필 동기와 목적

코헬렛은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헬렛의 말”로 전해지며(1,1), 코헬렛은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저자는 솔로몬으로 여깁니다. 코헬렛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특히 현세적 응보 체계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코헬렛 저자의 활동 시기는 마카베오 시대 이전 곧 기원전 3세기로 보고, 활동장소는 팔레스티나(예루살렘)를 배경으로 합니다.

코헬렛은 정통 신앙과 지혜에 대한 선입견 없이 인생과 세상사를 관찰한 결과 악한 행위를 한 이들이 겪어야 할 것을 의인들이 겪기도 하고 정반대도 있으며(8,14), 세상은 이상하게도 지혜를 추구하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같은 종말을 겪는다고 느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정한 질서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에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 허무해 보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하느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자 허무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코헬렛은 하느님께 대한 자기 민족의 믿음을 공유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 창조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해야 하고 그분께 영성적 경신례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각자를 그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며, 이러한 최종적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인간에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행복이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 집착함 없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적 지혜의 파산, 존재의 환멸, 모든 선의 무상함 앞에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것에 향수를 품고, 우주 안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계시와 자기 운명의 의미에 대한 계시를 갈망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허무(코헬 1,1-11) 모든 것이 헛된 세상
2. 코헬렛의 자기반성과 인생에 대한 반성(코헬 1,12-2,26) 헛된 욕망
3. 인간 현실의 부정적인 면과 한계(코헬 3,1-6,12)
4. 인간 실존의 문제들(코헬 7,1-12,8) 지혜로운 일곱가지 생각들
5. 맺음말(코헬 12,9-14) 하느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



**말씀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3; 3,1-17)**

1 <sup>2</sup>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sup>3</sup>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3 <sup>1</sup>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sup>2</sup>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sup>3</sup>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sup>4</sup>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될 때가 있다. <sup>5</sup>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sup>6</sup>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sup>7</sup>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sup>8</sup>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sup>9</sup>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sup>10</sup>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sup>11</sup>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sup>12</sup>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sup>13</sup>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sup>14</sup>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

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sup>15</sup>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sup>16</sup>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sup>17</sup>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서는 심판하시니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어떤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런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하는 생각으로 처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것이기에, 우리가 현실에서 쏟아붓는 노력도 현실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에, 그 어느 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고 충실히 노력하며 기다리렵니다(로마 8,25 참조).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우여곡절을 겪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길이 보입니까? 그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십니까?

## 26. 아가

### 집필 동기와 목적

‘아가’는 ‘맑고 깨끗한 노래’라는 뜻으로, 우여곡절 끝에 젊은 남녀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으로 그립니다. 유배이후 기원전 8세기 부터 예언자들은 주님과 선민을 혼인의 관계를 빌어 묘사했습니다.

아가의 사랑은 성적이며 동시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가는 - 창세 2,23-24에 대한 일종의 주석으로서 -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사업 안에서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갈구하던 자연의 풍요다산 역시 백성과 사랑의 계약을 맺으신 주 하느님, 그분 혼자의 힘으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아가는 진정한 육적 사랑(잠언 2,16-17; 말라 2,14)을 계약의 언어와 함께 서술하는데, 이는 당신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의 전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에페 5,25 참조).



### 구성과 내용

1. 나의 임금님(아가 1,1-4) 신랑에 대한 그리움
2. 연인 간의 대화1(아가 1,5-2,7) 신랑과 신부의 대화 - 그대 내 사랑이여
3. 여인의 회상(아가 2,8-17) 사랑하는님을 찾아서
4. 혼례 행렬과 연인 찬가(아가 3,1-5,1) 신부의 아름다움 찬미
5. 가버린 연인을 찾는 여인(아가 5,2-6,3) 상사병이 든 여인
6. 연인 간의 대화2(아가 6,4-8,7) 신랑과 신부의 대화 - 보고 싶은 님이여
7. 사랑의 인장(아가 8,8-14) 사랑의 힘

### 말씀 사랑하는 나의 임 못보셨소(아가 2,8-3,5)

(여자)

2<sup>8</sup>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9 나의 연인은 노루나 젊은 사슴 같답니다. 보셔요,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

10 내 연인은 나에게 속삭이며 말했지요.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 주오.

11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곁혔다오.

12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우리 땅에서는 멧비둘기 소리가 들려온다오.

<sup>13</sup>무화과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어 가고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고.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 주오.

<sup>14</sup>바위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오.”

<sup>15</sup>(여자의 어머니) 애들아, 여우들을 잡아라, 저 작은 여우들을. 우리 포도밭을,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망치는 저것들을.

<sup>16</sup>(여자)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그이는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고 있네.

<sup>17</sup>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나의 연인이여 베텔 산 위의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어서 돌아오세요.

3 <sup>1</sup>(여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sup>2</sup>‘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sup>3</sup>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셨나요?”

<sup>4</sup>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았네. 나 그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신 분의 방으로 인도할 때까지.

(남자)

<sup>5</sup>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노루나 들사슴을 걸고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 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읍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길을 걸을 때에도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휘감아 주시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저를 이끄시어, 주님 사랑의 도구 되게 하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가족의 사랑을 통해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 27. 지혜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지혜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 문헌에 영향을 받은 무명의 저자가 히브리말을 모르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지혜의 절대적 우월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리스 말로 썼습니다.

지혜서는 ‘의인들의 영혼의 불사불멸’과 ‘지혜의 의인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지혜서는 의인들이 왜 핍박을 받느냐고 욕기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지상에서 박해를 받은 덕성스러운 사람들의 영혼은 하느님 곁에서 불사(1,15; 3,4; 4,1; 8,17; 15,3) 불멸(2,23; 6,18-19)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심판 날에 보상을 받는다(2,22; 3,1-9; 4,7-14; 5,15-23)고 답합니다. 저자는 의인들의

생명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함으로써 저자는 잠언 1-9장의 본문을 이어받아 지혜의 창조적 활동과(7,12,22; 8,5-6) 우주적 기능을 강조합니다(7,24; 8,1).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가 신적인 것들의 인식과 관조에 이르기 위한 도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뜻과 의향을 드러내는(9,13,17) ‘계시’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에 다다른 하느님 은혜의 활동을 예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는 전통에서 이어받아 독창적으로 펼쳐 가는 ‘고통받는 의인’의 주제(2,10-20)와 군주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권력을 행사할 때에 가지는 특별한 책임(6,1-11), 특히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인간 인식의 한계에 관한 숙고(9,13-18), 피조물에서부터 출발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인식하는 능력(13,1-9), 옛 성경 이야기들과 관련된 하느님의 섭리적 통치에 관한 독창적 숙고(11,21-12,1; 12,15-18),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된 아론 대사제의 중개 역할(18,20-25)을 강조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인간의 길(지혜 1,1-5,23) 의인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의 패망할 운명
2. 지혜 찬가(지혜 6,1-11,4) 사람들이 알고 실천해야 하는 신비스러운 실체인 ‘지혜’



3.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지혜 11,5-19,22)** 이집트 탈출 때 드러난 지혜. “저희가 남을 심판할 때에는 당신의 선하심을 잘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때에는 자비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12,22)

**말씀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지혜 3,1-11)**

3 <sup>1</sup>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sup>2</sup>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sup>3</sup>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sup>4</sup>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sup>5</sup>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sup>6</sup>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였다. <sup>7</sup>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sup>8</sup>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sup>9</sup>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sup>10</sup>그러나 의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sup>11</sup>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

는 자는 불쌍하다.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노동은 벌이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은 결실이 없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데,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편합니다. 칭찬해 주자니 아부하는 것 같고, 모른 체하자니 질투하는 것 같고……. 올바르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배려를 망설이지 말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소인배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잘 안 풀려 억울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3. 지금 내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입니까?

## 28. 집회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저자는 자기를 기원전 200년경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라의 아들 예수”(50,27; 51,30: 벤시라)라고 밝히고, 집회서를 180년경에 썼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책을 에클레시아스티쿠스(Ecclesiasticus, 교회의 책 또는 모임의 책)라고 부르면서 새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이 책의 가르침을 이용하였습니다.



종교적 삶을 강조하는 2,15-17에 ‘주님을 경외한다.’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대목에는 지극히 선하신 절대자 앞에서 취해야 할 개인적 신심이 언급되는데 그분의 성덕 자체가 순명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되고 넓은 의미에서 지혜의 개념과 동일시됩니다.

이 경외심 안에서 지혜의 길을 보는 전통적인 사상은 이제 율법이 명시한(1,26; 6,37) 삶의 구체적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되었기(15,14)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며(31,10) 그가 승리할 때 하느님께 건강과 장수와 많은 자녀들과 안락한 생활과 명예 같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그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보편주의보다 유배이후 유다인의 일치를 위하여 선민사상을 강조하고 이방인들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11,33; 12,14; 13,17). 쿰란의 에세네파와 바리사이들(분리된 자들)도 여기서 자신들의 이름을 끌어냈습니다.

집회서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생각(27,30-28,7)은 복음서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죽을 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28,4-5)은 이미 사해동포 개념을 내포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레위 19,18)는 옛 율법서의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나온 반성입니다. 집회서 안에는 성경의 종교와 유대교의 특징들이 서로 조화되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 자주 인용된 것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 구성과 내용

1. 머리글(집회 1,[1]-[35])
2. 시라의 지혜(집회 1,1-50,29)
  - 1) 지혜와 금언들(집회 1,1-16,23)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길

과 지혜의 인도를 받은 삶

- 2)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금언들(집회 16,24-23,28) 선과 악을 분별하고 늘 주님께로 돌아가라.
- 3)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언들(집회 24,1-32,13) 지혜 찬미
- 4) 하나님 경외와 처세(집회 32,14-42,14)
- 5) 하나님의 영광(집회 42,15-50,29)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3. 부록(집회 51,1-30)

**말씀 인간의 자유(집회 15,11-20)**

- 15 <sup>11</sup>“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 12 <sup>12</sup>“그분께서 나를 빛나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 13 <sup>13</sup>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 14 <sup>14</sup>한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 15 <sup>15</sup>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 16 <sup>16</sup>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 17 <sup>17</sup>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 <sup>18</sup>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 <sup>19</sup>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알이 아신다.
- <sup>20</sup>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다짐했건만, 왠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여행을 할 수도, 기도와 피정만 하면서 살 수도 없건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서 오는 불완전함이 마치 유혹처럼 주님께 나아가려는 나의 지향을 흐리게, 약하게 잡아당깁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저를 강건히 이끌어주소서!’

-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 2.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희망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 예언서(활동연대순)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선택하시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주시시켜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미래의 사실을 미리 알아맞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하느님의 대변자’ 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각각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선포된 예언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 인정한 각 예언자의 제자들에 의해 전승됩니다.

예언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은 ‘대예언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쿱, 스바니아, 하카이, 즈카르야, 말라키는 ‘소예언서’ 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핵심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실천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느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 참다운 평화의 세계를 이룩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저버리고 불의와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언자들은 이 불의와 악행을 지적하고 이 죄악에서 돌아와 정의와 평화의 주 하느님께 충성하여 선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언서는 각 예언자들의 활동연대순으로 꾸몄습니다.

아모스는 기원전 760-750년경 주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호세아는 750-725년경 하느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사야는 740-520년경 이스라엘의 죄 심판과 유배에서 귀향 희망 및 유배 후 새 세상을 선포하고, 미카는 8세기 말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메시아가 베들레헬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하며, 예레미야는 626-587년경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며, 새 계약에 대해 예언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며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며, 바룩은 유배를 통해 죄를 고백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인도를 받으라고 예언하고, 나훔은 663년경 유다를 침략하는 아시리아에 경고하며, 하바쿱은 609-598년경 나훔에 이어 약소국을 침략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하고, 스바니아는 요시아왕의 640-609년경 우상숭배와 이방풍습을 멀리하라고 훈계하며, 에제키엘은 593-571년경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고 새로운 계약을 통한 구원을 예고하며, 하카이는 520년경 유배 후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훈계하고, 즈카르야는 520-518년경 하카이와 함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며, 오바드야는 5세기경 유다의 적과 연합한 에돔을 비난하고, 요엘은 400-350년경 주님께서 영을 내려주실 것이니 단식과 기도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요나는 4세기경 하느님께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고, 말라키는 460년경 전후 하느님을 섬기는데 무관심하고 이혼 등의 악습과 종말에 대해 예언하며, 다니엘은 167-164년경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께 신뢰하며 살도록 환시를 보여줍니다.

## 29. 아모스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아모스는 기원전 760-750년경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시리아가 고통을 받는 동안, 북 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태평시기에 활동합니다. 예로보암 2세의 북 이스라엘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오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강자의 사치와 약자에 대한 착취 등으로 민족의 일치가 위협받게 됩니다. 남 유다의 아모스 예언자는 북 이스라엘로 가서 형식적인 하느님 섬김을 강하게 비판합니다(아모 4,4-5; 5,4-5.21-27).

아모스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부유층에게 경고하고(8,11)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느님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주님의 날’과 관련시켜 선포합니다(5,15; 9,8).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되리라는 예언은 아모스(2,16; 3,14; 4,2; 8,9.11.13) 이후의 이사야(2,11; 11,11; 12,1; 30,26), 예레미야(30,5-7), 요엘(1,15; 3,2; 4,1), 스바니아(1,14.15), 말라키(3,19-23) 예언자에게서도 이어집니다.

### 구성과 내용

1. 아모스의 시작(아모 1,1-2) 아모스 예언자의 활동 연대와 동기
2.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아모 1,3-2,16) 가난한 자 착취와 약한 자 인권 유린에 대한 경고
3. 하느님의 말씀 선포(아모 3,1-6,14) 하느님의 말씀 선포와 패망을 경고
4. 아모스의 다섯 환시(아모 7,1-9,15)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자비와 용서를 받으리라는 희망 선포

### 말씀 심판 날이 다가왔다(아모 5,16-27)

5<sup>16</sup> 그러므로 주님께서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라.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고 곡꾼들을 불러 곡하게 하리라. <sup>17</sup>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



오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up>18</sup>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날은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sup>19</sup>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곶을 만나고 집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sup>20</sup>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sup>21</sup>“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sup>22</sup>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진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sup>23</sup>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 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sup>24</sup>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sup>25</sup>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사십 년 동안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sup>26</sup>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룻 상과 너희 별신 케완 상을 짚어지고 가리라. <sup>27</sup>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가끔 나 살기 바빠서 다른 이들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 편하고 우리 몇몇이 좋으면 다 잘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해 소외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쉬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다고 자위하면서 위기감이나 뉘우침 없이 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늘 성당과 사제관을 나서서 신자들을 방문하며 신자들의 일상과 함께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인간화와 비인격화 그리고 생명이 위협당해 어렵고 힘겨워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참목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고 자성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시다.
3. 믿음과 삶이 일치된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30. 호세아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750-725년경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풍요다산을 가져다준다는 바알신에게 의지하며 하느님께 불충하는 태도가 모든 부패와 도덕적, 경제적 부정(4,1-2; 6,7-10; 7,1)의 원인이라고 여기고, 진정한 풍요다산을 가져다주시는 분은 가나안 신들이 아니라 주 하느님이라고 지적합니다(2,7-11,23-25; 14,6-9).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하느님께서도 당신 백성을 그렇게 어리석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매번 바람이 나서 나가는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은 분개와 분노를 극복하는, 고통으로 다듬어진 사려 깊은 사랑이며, 어떠

한 시련에도 주저앉지 않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주님과 백성들 사이를 혼인관계로 설정하고, 주님의 바람, 실망, 분개와 분노를, 그러면서도 나날이 커져 가는 주님의 자애를 선포합니다. 그 자애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너희에게서 모든 불의를 내쫓고, 우상의 속임수를 경계' 하고 행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일상을 통한 사랑의 증거라는 호세아의 예언 활동은 예레미야의 '광야로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예레 2,2-3 과 호세 2,17 참조), 또 '새 계약'이라는 주제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 구성과 내용

1. 부정한 이스라엘과 주님의 심판(호세 1,1-3,5) 부정한 아내 고메르와 하느님 사랑에로의 초대
2. 우상숭배와 패망(호세 4,1-9,9) 우상숭배와 부정과 부패로 인한 패망 경고
3. 계약의 파기(호세 9,10-13,15) 하느님 사랑의 손실과 회개에로의 부르심
4. 이스라엘의 새 희망(호세 14,1-10) 심판과 벌, 회개와 구원으로 흐르는 하느님 사랑

### 말씀 호세아가 집나간 아내를 찾아오다(호세 3,1-5)

3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

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sup>2</sup>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세켈,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텍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다. <sup>3</sup>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창녀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sup>4</sup>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처럼 오랫동안 임금도 대신도 없이, 희생 제물도 기념 기둥도 없이, 에봇도 집안 수호신도 없이 살 것이다. <sup>5</sup>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주 저희 하느님과 저희 임금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을 향해 돌아올 것이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오늘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한 없이 쫓그라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쫓금만’, ‘이번만’ 하면서 야금야금 주님 사랑과 용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나를,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용서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하고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나눕시다.
3. 누군가를 용서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무슨 일입니까?

## 31. 이사야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으로 세 시대(1-39장, 40-55장, 56-66장)에 걸쳐 집필되었고,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신탁)들은 예레미야서와 에제키엘서에서처럼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 ‘이방 민족들의 불행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제1이사야는 기원전 740년 우씨야 임금의 변영시기(2열왕 15,1-7 참조)에, 사치가 팽배하고 지주계급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부정판 상황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2이사야는 기원전 550-539년경 하느님께서 유일하시며 결코 다른 신에 비길 수 없는 분이시며,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바빌론 유배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제3이사야는 기원전 537-520년경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즈 2; 느헤 7)과 본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유다 땅에 정주한 이방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성실성을 재확인하고 회개하도록 선포합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임마누엘의 탄생(이사 7,14; 마태 1,22-23)과 입술만의 예배(마태 15,8과 이사 29,13), 마지막 날 천체가 빛을 잃음(마태 24,29와 이사 13,10), 죄사함의 제물로 봉헌된 주님의 종(50,9; 53,9-12)에 관한 주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어 신약성경에 인용됩니다.

### 구성과 내용

1.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신탁(이사 1,1-12,6) 제1이사야
2.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사 13,1-23,18)
3. 세상에 내릴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이사 24,1-27,13)
4. 하느님께 향한 신뢰(이사 28,1-35,10)
5. 역사 속의 공의로우신 하느님(이사 36,1-39,8) 아시리아의 침략
6. 구원의 기쁜 소식(이사 40,1-48,22) 제2이사야의 귀향 선포
7. 예루살렘 재건에의 희망(이사 49,1-55,13) 고난받는 주님의 종
8. 새로운 구원의 실현(이사 56,1-66,24) 제3이사야의 재건 희망



### 말씀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이사 53,1-12)

53<sup>1</sup>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sup>2</sup>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sup>3</sup>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sup>4</sup>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sup>5</sup>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sup>6</sup>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sup>7</sup>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sup>8</sup>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sup>9</sup>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sup>10</sup>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

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sup>11</sup>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sup>12</sup>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힘겹고 지칠 때,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감히 청하오니, 제가 겪는 이 고통을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겪는 그 고통에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이사야가 예언하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백성들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32. 미카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8세기 말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침략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미카(‘누가 주님과 같으랴?’라는 뜻)는 잘못된 안전의식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계속해서 성실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권력가들이 놀랄 정도로 쉽게 매수되고, 예언자들과 재판관들은 진실과 공정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생각합니다. 가진 자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의 틈은 더욱 커지고, 사회 상황은 통탄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신례는 호화롭게 거행되지만, 마음의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악이 너무나 명백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죄의 화신으로 불리게 됩니다(1,5).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반역 정도에 따라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심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프라타의 보잘것없는 씨족에게서 일어날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십니다(5,1-5). 바로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임금이 태어나리라. 흩어진 지파들의 재결합은, 땅 끝까지 퍼져 나갈 위대한 평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지가 되어, 민족들이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것입니다(미카 4,1-5).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은 주님께 회개한 이민족들에게 복의 원천이 되고, 반항하는 민족들에게는 형벌의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안전 의식, 허위에 찬 경신례, 우상 숭배는 모조리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 주어지는 구원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 구성과 내용

1. 머리글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미카 1,1-2,11) 하나님께서 죄를 밝히시려 나서시리라.
2.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미카 2,12-13) 남은 자들을 모아 구원하리라.
3.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미카 3,1-12)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고발함.



4.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약속(미카 4,1-5,14) 그날이 오면 평화를 누리리라.
5.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발함(미카 6,1-7,7)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6. 하느님의 궁극적인 승리(미카 7,8-20) 당신 같은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하느님께 용서를 빌다(미카 6,8; 7,18-20)**

6 <sup>8</sup>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7 <sup>18</sup>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체해 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sup>19</sup>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없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체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sup>20</sup>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고, 나약해서 충실하거나 꾸준하지도 못해 저 자신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살려두고 계시니, 아마 주님은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실텐데 아무 별도 아니 내리시니 그냥 모른 체해 주시는가 봅니다. 그저 마음과 원의만 보아주시고 우리의 탓과 허물을 용서해주시니 자비로우신 주님의 해량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저를 이끄시어, 주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미사에 참석하여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리기 전에 요즘 내가 무엇을 먼저 회심해야 합니까?

## 33. 예레미야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626-587년경에 활동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고독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숨기지 않고, 불만에 가득 차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되찾고 그 길을 향해 성실하게 걸어 나갑니다(15,19-21).



요시아왕 때 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길만을 고집하고 그들이 세운 체제가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었고(18,18; 8,8 참조), 유사시엔 성전에 피신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7,4.10 참조). 그러나 605년경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605-587년, 네부카

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세력에서 하느님의 의지를 보고, 하느님께서 하느님 사랑에 백성들이 충실히 응답하고(3,22-4,4 참조), 마음으로부터 정의를 수호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외칩니다(5,1-3; 22,13-17; 23,5-6 참조).

587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친바빌론파는 바빌론의 보호 아래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고 예레미야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양심과 무관하게 암몬 임금에게 의존하면서 폭력을 사용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합니다(41,1-10 참조). 세 번째 부류는 이집트에 망명하기를 원했고, 예레미야를 인질로 끌고 갔고, 예레미야의 흔적은 이 이집트 망명길에서 끊어집니다.

### 구성과 내용

1. 유대와 이민족에 대한 신탁(예레 1,1-25,38) 예레미야의 소명과 여호야킴, 치드키야 치세의 예언
2.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예레 26,1-45,5) 심판과 새로운 희망의 계약과 예레미야의 수난
3. 이민족에 대한 신탁(예레 46,1-51,64) 이집트, 필리스티아, 엘람과 바빌론에 관한 예언
4. 예루살렘의 멸망(예레 52,1-34)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 말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예레 26,1-9)

26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sup>2</sup>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 뜰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sup>3</sup>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sup>4</sup>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 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sup>5</sup>또 내가 너희에게 잇달아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 <sup>6</sup>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sup>7</sup>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sup>8</sup>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sup>9</sup>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물려들었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전했다기 때문입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전하는 것인데, 나는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정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나의 노력이 거짓 예언자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위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3. 주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나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 34. 애가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587년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2열왕 25,1-21 참조).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애도합니다. 이 성읍은 눈물 속에, 탄식 속에, 고통 속에, 폐허 속에, 수치와 기아 속에 잠깁니다. 예루살렘은 아이들, 처녀들, 청년들, 원로들, 사제들, 예언자들, 그리고 임금들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신성한 성전과 축제 때 경신례를 거행하는 공동체 역시 속화되고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 덕분에 주님께 대한 반항, 항거, 거역, 불순종과 패륜

등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적들의 손을 빌려 예루살렘을 무겁게 내리누르시고, 모든 악을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악에 대한 그분의 진노, 분노, 격노가 불로 서술되고, 죄인들에게 적의 모습을 취하셔서, 고통을 내리시고 먹구름으로 뒤덮으시며, 사정없이 쳐부수시고 도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겪는 이들을 모른 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시면서 들으시고 직접 보시며 기억하십니다.

인간은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의롭고 전능하시며, 약속하신 당신의 자애에 충실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다함없는 모성적 자비를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벌을 받지만 그것은 겸손한 고백,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자의가 아닌, 하느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회개로 인도하시기에 은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 구성과 내용

1. 첫째 애가: 예루살렘의 참상(애가 1,1-22) 폐허가 된 시온
2. 둘째 애가: 주님의 진노의 날(애가 2,1-22) 원수 같으신 하느님
3. 셋째 애가: 고통과 희망(애가 3,1-66) 애절한 탄식
4. 넷째 애가: 징벌의 한 가운데에서(애가 4,1-22) 파괴된 도성
5. 다섯째 애가: 애원의 기도(애가 5,1-22) 백성의 기도



**말씀 주님, 이 비참한 모습을(애가 1,1-9)**

1<sup>1</sup>아,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 있다. 못 나라 가운데에서 뛰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구나.

<sup>2</sup>밤이면 울고 또 울어 뺨 위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구나. 그 모든 애인들 가운데 위로해 줄 자 하나 없고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sup>3</sup>유다는 고통과 고역 끝에 유배를 당하여 안식처를 얻지 못한 채 민족들 사이에 앉아 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모두 곤궁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다.

<sup>4</sup>축제를 지내러 가는 이들이 없어 시온을 향한 길들은 비탄에 잠기고 성문들은 모두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젖어 있으니 시온도 쓰러려하는구나.

<sup>5</sup>그의 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편안히 지내니 그의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적 앞으로 끌려갔다.

<sup>6</sup>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영화가 떠나가 버리고 고관들은 목초지를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걸어갔다.

<sup>7</sup>예루살렘이 제 고통과 유랑의 세월을 회상한다, 예로부터 있어 왔던 그 온갖 소중한 것들도.

<sup>8</sup>그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질 때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적들만 그를 보며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sup>9</sup>예루살렘은 무거운 죄를 지어 혐오 거리가 되어 버렸다.

그 숭배자들이 그를 멸시하니 그의 치부를 보았음이라. 예루살렘 자신도 탄식하며 등을 돌려 버린다. 부정이 옷자락에 묻어 있어도 제 종말을 생각하지 않더니 기막히게 몰락하였건만 위로해 주는 이 아무도 없다. “주님, 제 고통을 보소서, 원수가 의기양양해합니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큰 사고가 나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힘겨워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 사람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청해야 하는가? 매주일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비가 오도록 청해야 할 것인가?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도 무미건조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버리지 않았는지 자성해 봅시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주님을 느낄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3.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받거나 갈 길을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 35. 바룩서

### 집필 동기와 목적

바룩서는 칠십인 그리스말 역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바룩(“축복받은 이”)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비서요 친구이며, 유다 왕궁의 서기관이었다. 바룩서는 유배 중인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에게 참회예식을 거행하도록 격려하는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서에서 우상숭배를 배척하는 데 역점을 두는데, 예레미야서와 제2이사야서와 맥을 같이하고(이사 44,9-20; 예레 10,1-16; 이사 40,19-20; 41,6-7; 46,1-9 참조), 그 사상이 지혜서(13-15장)와 바오로 서간(로마 1,18-32)까지도 이어집니다.

### 구성과 내용

1. 참회의 고백과 기도(바룩 1,1-3,8) 포로 된 자들의 참회기도
2. 지혜에 관한 명상(바룩 3,9-4,4) 이스라엘아 돌아서서 지혜를 따라라.
3.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바룩 4,5-5,9)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아
4. 예레미야의 편지(바룩 6,1-72) 우상숭배를 경고 -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주님뿐

### 말씀 예레미야의 편지(6,1-7,23,35-39,52-53,65-66)

6<sup>1</sup>예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빌론인들의 임금이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전하려고 보낸 편지의 사본.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sup>2</sup>그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일곱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 <sup>3</sup>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sup>4</sup>그러니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저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sup>5</sup>너희는 군중이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sup>6</sup>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sup>7</sup>그것들의 혀는 목수가 다듬고 금과 은으로 도금해 놓았지만, 가짜라서 말을 할 수가 없다.

<sup>23</sup>그것들은 금으로 보기 좋게 입혀 놓아도, 누군가 때를 닦아 내지 않으면 결코 빛나지 못한다. 그것들은 부어 만들어질 때에도 아픈 줄 모른다.

<sup>35</sup>그것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내지도 못하고, 약자를 강자에게서 빼내지도 못한다. <sup>36</sup>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빼내지도 못한다. <sup>37</sup>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고아를 잘 돌보아 주지도 못한다. <sup>38</sup>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것들은 산에서 가져온 돌이나 다름없으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창피를 당한다. <sup>39</sup>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sup>52</sup>그것들은 결코 나라의 임금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 줄 수도 없으며, <sup>53</sup>자신들의 송사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힘이 없어 구제하지도 못한다.

<sup>65</sup>그것들은 임금들에게 저주나 복을 내리지도 못한다. <sup>66</sup>또한 민족들에게 하늘의 표징을 보여 주지도 못하고, 태양처럼 빛을 내거나 달처럼 빛나지도 못한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누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성당에서도 어느 신부님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돕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도 우리는 그 어느 누구의 재주나 방법 등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 재주나 방법이 마치 우리 소원의 마법사이거나 자동결제라도 해주는 듯이 매달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빌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주님의 구원 사업의 도구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복음 사업을 통해 드러나시도록 간구하며 달려 나갑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주님을 느낄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3.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받거나 갈 길을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 36. 나훔서

### 집필 동기와 목적

나훔(위로받은 이)은 기원전 633년경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 아시리아를 경고하며,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로마 15,4-5 참조). 그를 움직일뿐더러, 그 자신도 신앙의 커다란 힘으로 확언하는 이 희망은 나훔을 움직이고 나훔의 신앙을 확인해줍니다. 지금 사자처럼 무섭고(2,12-14) 큰 유혹의 힘을 지닌(3,4) 적들이 융성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필코 승리하시리라(1,12; 3,15-17). 나훔은 정치적 상황을 피상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외적의 침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동족에게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앙의 전망을 역사 속에 끌어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서로의 연대성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일관적으로 전합니다. 요나서는 나훔의 지평을 이어받아 그것을 더 넓혀 갑니다. 그리고 간혹 나훔의 니네베 멸망의 서술에 들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한 요엘은(요엘 2,4-9과 나훔 2,4-5.11; 3,2-3 참조), 나훔서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머리말과 열정과 보복의 하느님(나훔 1,1-8) 분노에 더디시지만 죄악을 버려두시지 않는 하느님
2. 니네베 함락(나훔 1,9-2,3) 아시리아(니네베)에는 벌이 유다에는 구원이
3. 니네베의 멸망(나훔 2,4-3,19) 정의와 약자의 보호자 하느님

### 말씀 유다와 니네베에 내리는 신탁(나훔 1,2-3.12; 2,1,3)

- <sup>1</sup> 주님은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화를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 <sup>3</sup>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힘이 뛰어나신 분,  
 그러나 멸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 <sup>12</sup>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빈틈없고 그토록 많아도  
 잘려 나가 사라지고 말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 2 <sup>1</sup>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축일을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한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 <sup>3</sup>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 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주님,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하며 지배하던 이들의 손아귀에서 저희를 건져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신들이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의 발아래 있다고 여겨 괴롭히던 이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저희를 구하소서. 주 우리의 하느님,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셔서, 우리 세대에 평화를 주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눕시다.
2. 누군가나 어느 세력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3.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성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나눕시다.

## 37. 하바쿠서

### 집필 동기와 목적

하바쿠 예언자는 기원전 609-598년경 바빌론의 예루살렘 포위와 유배로 이어지는 패망의 역사적 상황(2열왕 23-25)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성' (2,4)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리라. “하느님께서 테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3,3)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시각을 재발견하기 위하여 하바쿠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쿤란 공동체는 이 예언서를 자신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비취주는 빛으로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바 2,4를 인용하면서(로마 1,17; 갈라 3,11; 히브 10,38), 이 예언서의 핵심 용어인 “성실함”의 의미를 확장시켜 “믿음”을 표현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하바쿠의 환시(하바 1,1-2,4) 하바쿠 예언자의 항의와 하나님의 답변
2. 불의한 자에 대한 저주(하바 2,5-20)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침략자 바빌론에게 내리는 저주
3. 하나님의 승리와 하바쿠의 기도(하바 3,1-19) 주 하나님께 대한 찬미기도

### 말씀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다(하바 2,1-6)

<sup>2</sup>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sup>2</sup>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sup>3</sup>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sup>4</sup>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sup>5</sup>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디어 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sup>6</sup>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 내지 않겠느냐?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굶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 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위기와 파멸의 순간에 바라보는 희망. 그 희망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리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8-9) 지금 아니어도, 이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주실 주님의 희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어렵고 절망스런 순간에 주님께 희망을 둔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3.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성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나눔시다.

## 38. 스바니야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스바니야는 기원전 640-609년경 예루살렘의 불행을 예언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함락 후 유배자들에게 귀향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니야는 묵시 문학적인 ‘하늘’과 주님의 겸손한 이들의 ‘땅’ 사이에 사는 당신 백성들 “한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3,5.12.15)께서 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억눌린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스바니야는 예루살렘이 불충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을 것이며, 필리스티아(서쪽), 모압과 암몬(동쪽), 에티오피아(남쪽), 아시리아(북쪽)에게도 파멸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대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작은 이들, 겸손한 이들, 곧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남은 자들’에게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에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 곧 “남은 자들”을 모으시어, 주



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스바니야는 “주님의 날”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회심과 죄악의 종말로 소개합니다(3장).

### 구성과 내용

1. 주님의 날(스바 1,1-18) 우상숭배와 부패에 빠진 유다에 대한 경고와 다가온 주님의 날 선포
2. 이민족들에게 내려질 벌(스바 2,1-15)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경고
3. 예루살렘의 배반(스바 3,1-8) 믿었던 예루살렘의 죄 고발
4. 구원의 약속(스바 3,9-20) 남은 자들의 회복과 재건의 약속

### 말씀 백성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스바 3,5.12.15)

3<sup>5</sup> 그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당신의 공정을 펴신다. 동틀 녘마다 어김없이 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는구나.

<sup>12</sup>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sup>15</sup>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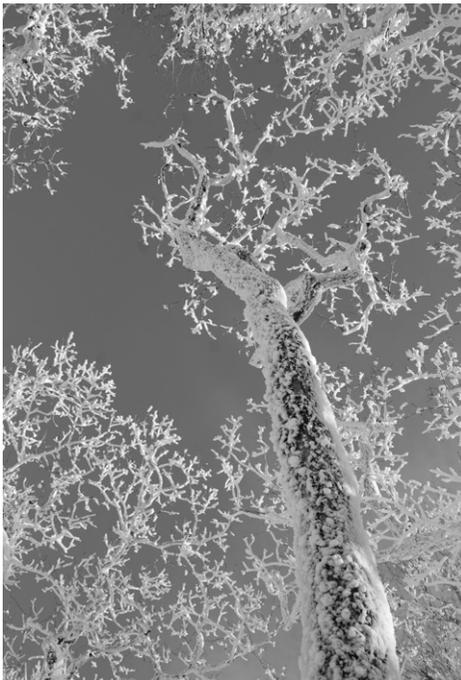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주저앉아 자신과 세상과 세월을 탓하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간직하고 있지, 그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고, 내기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존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와신상담의 자세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그날을 위해 오늘 내 자리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이루어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세월과 처지에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계속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까? 있다면, 나눔시다.
3.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겸손한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39. 에제키엘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을 함락한 네부카드네자르의 군대는 왕궁과 성전의 기물들과 임금, 모후, 왕비들, 지도층 인사들, 사제 가문 출신의 에제키엘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고군분투하지만 587년 유다는 깡그리 패망하고 눈이 뽑힌 치드키야왕을 비롯한 2차유배가 시작됩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영광에 여러 번 사로잡혀(1,28; 3,23; 8,4; 10,1; 43,2) 주님 영광을 보고는(1,4-28) 실신합니다(3,15). 주님의 영광 앞에서,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의 아들”인 그는 낮이 나갑니다(1,28; 2,2; 3,14-17,22-23). 주님의 손이 무겁게(3,14) 내리시고(1,3; 3,22; 8,1; 33,22; 37,1; 40,1), 또

그분의 영이 내리시어(2,2; 3,24; 11,5) 그를 들어 올리십니다(3,12,14; 8,3; 11,1,24; 43,5).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11,22,23).

하느님의 말씀은 단맛으로 에제키엘을 가득 채우기도 하지만(3,2,3), 그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외칠 때마다(3,11), ‘가시로 둘러싸이고 전갈 떼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2,6 참조). 유배 전까지 불행을 예고했던 에제키엘은 이제 “남은 자들”(6,8-10; 9,4-8; 11,13; 12,16; 14,22,23)과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유배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들(36,24-28)이 구원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34,1-10; 34,11-16; 34,24).

새로운 백성은 “마지막 때”(38,8) 승리를 거두고 팔레스티나 땅에 정착하며(47-48장),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살 것입니다(47장). 이 성전은 주님의 영광을(43,1-12) 찬미하는 전례가 모든 규정에 따라(40; 46장) 거행되며, 새로운 백성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예언서의 마지막 말, “야훼-삼마(야훼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엿볼 수 있는 그런 신비입니다(48,35).

### 구성과 내용

#### 1. 유다 멸망 이전 경고

- 1) 환시와 소명(에제 1,1-3,27)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 2)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제 4,1-24,27)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2. 이민족에 대한 예언(에제 25,1-33,20) 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를 통한 이민족 심판 예고
3. 전환점(에제 33,21) 예루살렘 함락
4. 유다 멸망 이후
  - 1) 구원 예고(에제 33,22-39,29) 새 마음과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 2) 새 예루살렘(에제 40,1-48,35) 주님, 여기 계시다.

**말씀 주님의 이름 때문에(에제 36,24-28)**

36 <sup>24</sup>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sup>25</sup>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sup>26</sup>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sup>27</sup>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sup>28</sup>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늘 에제키엘 예언자의 말씀에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가끔 나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악습과 헤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걸려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기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정말 힘겹습니다. 심지어는 커다란 낙담 속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미워하며, 기운이 처지고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아니 완전히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커다란 기쁜 소식입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실제로 이루어주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해주소서!’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고통과 좌절을 이겨낸 적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던 에제키엘 예언자는 어렵다는 이 시대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실 것 같습니까?

## 40. 하카이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537년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지만(에즈 3,7-12),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마리아 주민들이 자신들을 끼어주지 않자 적대적으로 나와 힘겨워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522년경 페르시아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하카이와 즈카르야 예언자는 공동체를 일깨우고자, 520년경 8월부터 12월 12달간 하카이는 이스라엘이 영적 혼수상태로 빈곤과 흉작이라는 벌을 받았으니, 신앙의 열성을 되찾고 주님께 합당한 집을 지어 드리면, 복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리라고 선포하여 성전건축이 재개

됩니다. 하카이는 다윗의 자손 즈루빠벨을 메시아로 여기며,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는 전조를 보이고(2,21-22), 구원이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 구성과 내용

하카이서는 단 두 장, 서른여덟 절로 되어 있습니다.

1. 하느님의 집을 지어라(하카이 1,1-15) 성전 재건
2.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겠다(하카이 2,1-9) 새 성전의 영광
3. 그날부터 복을 내리시리라(하카이 2,10-19)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리라
4. 즈루빠벨을 나의 종으로 삼으리라(하카이 2,20-23) 주님의 날에 대한 희망 선포

### 말씀 주님의 날에(하카이 2,20-23)

2<sup>20</sup>그달 스무나흘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하카이에게 내려졌다. <sup>21</sup>“너는 유다 총독 즈루빠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sup>22</sup>나는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 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sup>23</sup>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 즈루빠벨아 — 주님의 말씀이다. — 내



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지 이천 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참 많아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들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세상이 하늘나라로 변화되었는지 자신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인간의 욕망과 본성이 더 자극하고 설쳐대는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은 인간 세상을 더 교묘하게 파고들고 점점 더 강해진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교 정신이 제도와 문화로 스며들어 전체적으로 인간 세계가 복음화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조급한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지친다고 느껴지고, 내가 이런다고 얼마나 늘어났을까, 우리의 노력이 바윗돌에 계란 던지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앞에 그 결과가 확확 드러나지 않으니,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안에서조차 희망이 약화되고 있음을 자성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우리가 이 땅에 지으려고 하는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겸손한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41. 즈카르야서

### 집필 동기와 목적

1-8장의 이포 사제가문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느헤 12,16) (제 1)즈카르야는 기원전 520년 10-11월(1,1) 하까지의 마지막 신탁 한 달 전(하까 2,10,20)부터 515년 새 성전이 봉헌되기 삼 년 전까지 희망을 선포하며 회개를 호소합니다(1,3-6; 7,4-14; 8,16-17). 유배 이전에는 하느님께서 대예언자들과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시를 통해 통교하셨지만, 즈카르야에게는 좀 떨어져 있는 듯 보이고, 천사나 기사 같은 중개자들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 뜻을 실현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작업이 여의치 않아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가자 (제 1)즈카르야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후 다른 민족도 동참하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2,15; 8,20-22,23).



즈루빠벨을 구원의 시대를 열 인물로 여기고, 대사제와 함께 제후와 사제의 이원통치체제를 펼쳐나갑니다(4,14; 6,13). 즈루빠벨이 사라진 뒤에 메시아의 역할이 사제에게 집중됩니다. 이러한 희망은 예레 33,14-26과 콤란 문헌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는 이 희망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히브 3장).

9-14장에 나오는 (제2)즈카르야는 이사야의 묵시록(24-27장)처럼 하느님 손수 적들을 진압하시고 온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시며 구원업적을 이루십니다(9,1-8; 9,11-17; 10,3-11,3; 14,1-21). 예언자는 새 상황,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임금-메시아(9,9-10; 시편 22,27; 69,33-34; 이사 49,13; 57,15; 61,1-2; 66,2; 스바 2,3; 3,11-13), 배척을 당하고 팔아 넘겨져 제거되며 또 그의 희생이(13,7) 계약의 복구에 이바지하는(13,9) '선한 목자' (11,4-17),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주님의 좀 모습을 이어받은 '찢려 죽은 이' (12,1-13,1)란 메시아상을 보여주어, 수난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마태 21,4-5와 요한 12,15; 마태 26,31과 마르 14,27; 마태 27,9-10; 요한 19,37).

### 구성과 내용

1. 제1 즈카르야 성전건축 중(즈카 1,1-8,23) 메시아 시대의 영광
2. 제2 즈카르야 성전건축 이후
  - 1) 다가오는 메시아 시대(즈카 9,1-11,17) 겸손한 '임금-메시아', 호의와 일치의 '선한 목자 메시아'
  - 2) 새 날을 맞는 예루살렘(즈카 12,1-14,21) '찢려 죽은 이 메시아'의 희생으로 하느님 왕권이 도래

### 말씀 찢려 죽은 이 메시아(즈카 13,1-9)

13 <sup>1</sup>“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 줄 샘이 터질 것이다. <sup>2</sup>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 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 버리겠다. <sup>3</sup>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찢을 것이다. <sup>4</sup>그날에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저희가 본 환시를 부끄럽게 여기며, 속이려고 입던 털옷을 걸치지 않을 것이다. <sup>5</sup>그러면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यो.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sup>6</sup>누가 그에게 ‘당신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찌 된 것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sup>7</sup>“칼아,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들을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 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sup>8</sup>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삼분의 이가 잘려 죽고 삼분의 일만 살아남으리라. <sup>9</sup>나는 그 삼분의 일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제련하듯 그들을 제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살더라도 영예롭게 살고, 죽더라도 영예롭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시다만, 그것도 허황되고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개죽음처럼 ‘찢려 죽은 이 메시아’의 모습은 정말 먼 훗날 그 어느 누구의 기억과 평가로 얻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저주와 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래야만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는 처지를 어느 누가 반기고 기꺼이 선택하겠는가? 비록 부당한 요구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긴 하였지만 그러한 외적인 부당한 요구를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승화된 희생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리라. 그리고 그 받아들임은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결과일 수밖에 없으리라.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목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월계관을 들고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봅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은총어린 선택과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형제들을 향한 희생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섭리로 ‘우리가 거룩한 찢려 죽은 이, 주님의 고난 받는 종이라는 은덕을 입을 수 있다.’는 겸허하고 두려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되새깁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메시아의 영광과 ‘찢려 죽은 이’의 희생이라는 구세주의 상반된 이미지를 비교해봅시다.

## 42. 오바드야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오바드야서는 21개의 절로 이루어져 예언서 가운데에서 가장 짧고, 그 문학 유형은 예언자들의 ‘민족들에 관한 신탁’, ‘주님의 날’의 도래를 선포하는 신탁들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유배를 가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오바드야(‘주님의 종’)는 환시를 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민족들의 주님으로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통치하실 ‘주님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예언자는 에돔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과 탐욕, 현자들의 오만한 주장을 죄악이라고 단죄하며(10-15절), 낙담한 생존자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 구성과 내용

1. 에돔에 내린 심판(오바 1-14) 에돔은 망하리라.
2.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오바 15-18) 유다는 회복되리라.
3. 새로운 이스라엘(오바 19-21) 이스라엘의 회복

### 말씀 에돔의 죄악과 주님의 날(오바 10-15)

<sup>10</sup>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행 때문에 너는 치욕으로 뒤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sup>11</sup>네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 날 이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낯선 자들이 그의 대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로였다. <sup>12</sup>너는 네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sup>13</sup>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sup>14</sup>너는 갈림길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sup>15</sup>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네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예수님께서서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가끔 반대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지, 나를 무시했던지 등등 나와서의 관계에 따라 공부정의 태도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고, 기뻐해 주어야 할 순간에,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를 깎아 내리려 하고, 남모르는 허물을 들추어내서 마치 다 된 밥에 재라도 뿌리듯 망치려고 합니다. 그가 보고 또 주님께서 보신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상황입니다. 홀로 있거나 이해관계에 놓이거나 어려움에 처해도 스스로를 정화하고 절제하여 인격의 도리를 지키고자 다짐해 봅시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누군가를 험담하고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3. 누군가를 칭찬하고, 도와주고,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 43. 요엘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400년경 정치적 안정 속에 유일한 성소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잘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언자인 요엘(‘주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시대에 메뚜기 떼가 가뭄으로 이미 황폐된 이스라엘을 덮쳤고, 하느님께 바칠 제물까지 없어져, 하느님을 찬양하고 제물을 바치는 기쁨마저 없어졌습니다(1,12,16).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탄원 기도를 올리며 참회 예절을 거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요엘은 하느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이 늘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사건, 곧 “주님의 날”의 전조라고 가리킵니다(1,15 참조). 이것은 아모스서와 이사야서를 거쳐 스바니아서와 에제키엘서 30장, 그리고 오바드야서와 말라 3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예언자가 오래 전부터 예고해 온 날, 곧 심판(2,3,11 참조)과 구원(3-4장)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날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느님의 백성에 소속되는 것과 율법이나 경신례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2,12-17).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찢는 참회’를 해야,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 영을 풍성히 내려 주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3,1-2), 주님의 이름을 참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3,5).

### 구성과 내용

1. 재난 선언(요엘 1,1-2,17) 메뚜기 떼 - 기근과 참변: 주께서 거동하실 날이 왔다.
2. 주님의 응답(요엘 2,18-27) 회개 촉구 - 심장을 찢으며 주님께 돌아오라.
3. 주님의 날(요엘 3,1-4,21)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요엘 1,4.11.15; 2,12-17)**

1 <sup>4</sup>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어 버렸다.

<sup>11</sup>밀과 보리를 생각하며 농부들아, 질겁하여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들아, 울부짖어라. 들의 수확이 다 망가졌다.

<sup>15</sup>아, 그날! 정녕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2 <sup>12</sup>“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sup>13</sup>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sup>14</sup>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 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 줄지 누가 아느냐? <sup>15</sup>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sup>16</sup>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sup>17</sup>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셋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매일의 기도와 노력이 점점 회개와 구원을 향하기보다는 현재 삶의 고착과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자성해 봅니다. 용서와 배려가 진실한 회개의 기회로 이어지지 못함은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주체적이고 자신에게 기준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취적이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새로 날 각오를 나눔시다.

## 44. 요나서

### 집필 동기와 목적

제2이사야서보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보편주의를 폭넓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유배 이후 기원전 약 4세기경의 작품으로 봅니다. 요나(‘비둘기’)서는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비록 생명의 위협이 되더라도(1,1-16; 3,1-10)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과, “자비롭고 너그러운” 주님은 니네베인을 포함한 이민족들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여 주님 구원 계획의 보편성을 알리는 두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기적을 요구하는 불신자들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니네베에 회개를 가져온 ‘요나의 징표’를 지적하십니다(마태 16,4; 루카 11,29-30). 예수님 부활 이후,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1코린 15,4)는 가장 오래 된 신경의 표현도 이 ‘요나의 징표’와 연결되고, 복음의 보편적 효력을 드러냅니다(마태 12,40-42).

### 구성과 내용

1. 요나의 소명(요나 1,1-16) 니네베로 가기를 거부하고 타르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2. 요나의 청원(요나 2,1-11) 죽음의 고비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요나
3. 소명의 실현(요나 3,1-10)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는 니네베 사람들
4. 하느님의 자비(요나 4,1-11) 요나의 투정

### 말씀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요나 4,1-11)

4<sup>1</sup>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sup>2</sup>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고 있었습니다. <sup>3</sup>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sup>4</sup>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sup>5</sup>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sup>6</sup>주 하느님께서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 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sup>7</sup>그런데 이튿날 동이 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쓸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sup>8</sup>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서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sup>9</sup>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sup>10</sup>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sup>11</sup>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십이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삼대 축인 기도와 단식과 희생봉사는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단식,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 봉사의 노력이 우리를 주님께 향하도록 하기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 사랑을 듬뿍 얻어,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력한 노력을 기울이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이 기분 나쁘거나, 누군가에게 (구원의) 좋은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망설이거나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3. 주님 사랑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해 내 주위의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 45. 말라키서

### 집필 동기와 목적

480-460년경 하카이와 즈카르야 예언자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희망을 불러넣었지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자, 백성들은 실망과 회의에 젖어, 주님께 충실치 못해 전례를 등한시하고 부정부패의 과오를 재현합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사제와 일반인을 막론하고 저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지녀야 할 책임을 상기시키며, 개인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개혁자요 온 유다 공동체의 안내자가 됩니다. 말라키서는 때로는 냉혹하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리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 구성과 내용

1. 이스라엘의 선택(말라 1,1-5) 나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2. 그릇된 경신례와 참된 사제직(말라 1,6-2,9)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이 살아있도록
3. 혼중혼과 이혼에 대한 경고(말라 2,10-16)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
4. 심판과 정화(말라 2,17-3,5) 특사를 보내어 나의 길을 닦으리라.
5. 십일조와 예물 봉헌(말라 3,6-12)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6. 주님의 날에 드러날 정의(말라 3,13-24) 그날 엘리야가 나타나 상선벌악을 주도하리라.

### 말씀 주님의 사자가 오리라(말라 3,1-5)

3<sup>1</sup>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 만군의 주님께서서 말씀하신다. — <sup>2</sup>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sup>3</sup>그는 은 제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sup>4</sup>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sup>5</sup>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 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

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 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강론을 할 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복음 말씀이 그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스스로 실현하려는 의지 여부인데, 통 거짓 예언자들의 틀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비롯된 영육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세례를 받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제(의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46. 다니엘서

### 집필 동기와 목적

기원전 167-164년경 다니엘 예언자는 기존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 회의를 던지고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대하며, 유다 마카베오와 합류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간 경건한 유대인(하시드인)들(1마카 2,28-38,42-43 참조)의 무리에 속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임박한 미래에 있을 하느님의 역사, 곧 '종말'에 관해 말한다는 면에서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다니엘은 역사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서, 악의 세력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반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승리까지 거두지만, 마침내는



‘사람의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야 만다는 예언을 선언합니다.

우상숭배를 요구하던 이민족에게 대항하여 목숨을 바친 유다인들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2마카 7장과 다니 12장은 마지막 날 부활(復活)에 대한 신앙,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 영혼(靈魂)과 육신(肉身)에 대한 신앙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불가마 속에 있는 세 젊은이(3,49-92)와 사자 굴의 다니엘(5,23)을 구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십니다(4,14; 10,13.20-21; 12,1). 사람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경탄스러운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깨닫게 됩니다(2,34.45; 3,11-13.20-22; 5,5; 8,25). 박해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과 율법에 충실한 유다인들은 성공할 것이며(1장; 2,48; 3,30; 5,29), 이웃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며,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들까지도 구하리라는 선교의 전망을 펼칩니다(2,46-47; 3,31-33; 4,34; 6,27-28).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보편주의와(예레 25) 제2이사야의 위로의 메시지(이사 41,25-29; 45,1-6)를 넘어, 악인은 쓰러지고 주님께서 역사 안에서 신비스럽게 활동하신다는 역사신학을 전개합니다.

유다인들이 하느님 나라의 수혜자가 되기 전에 시련을 겪으며 믿음을 단련하여야 할 것이며(11,35; 12,10), “책에 쓰인 이들”(12,1), 곧 ‘남은 자들’만이 ‘미래의 세계’의 행복에 참여할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불가마 속에서도(3,28), 사자 굴에서도(6,22) 믿는 이들을 구하실 것이며, 죽음의 희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12,2-3; 2마카 7,9.11.14.23.29 참조). 과거 죽음의 영역

이었던 저승이 이제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기록되고, 미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줍니다.

### 구성과 내용

1. 다니엘과 불가마 속의 세 친구(다니 1,1-6,29) 너희가 섬기는 신 이야말로 찬양 받을 분이로구나.
2. 다니엘이 본 환시(다니 7,1-12,13)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 날은 오고야 만다.
3. 다니엘의 다른 공적(다니 13,1-14,42) 당신께 희망을 건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 말씀 세 젊은이의 노래(다니 3,51-90)

- 3<sup>51</sup>그러자 세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 52“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 53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sup>54</sup>당신의 왕좌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  
 십니다.

<sup>55</sup>커룹들 위에 좌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당신께  
 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sup>56</sup>하늘의 궁창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sup>57</sup>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58</sup>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59</sup>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0</sup>하늘 위 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1</sup>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2</sup>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3</sup>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4</sup>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5</sup>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6</sup>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7</sup>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8</sup>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69</sup>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0</sup>얼음과 눈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1</sup>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2</sup>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3</sup>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4</sup>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5</sup>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6</sup>땅에서 싹트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7</sup>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8</sup>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79</sup>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0</sup>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1</sup>뜰짐승과 짐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2</sup>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3</sup>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4</sup>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5</sup>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6</sup>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7</sup>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sup>88</sup>하난야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 주시고 죽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 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 내셨다.  
<sup>89</sup>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sup>90</sup>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 묵상과 나눔 그리고 적용

신앙은 보이지 않고 또 쉽게 그 형태가 그려지지도 않으며, 내 때에 이루어지리라는 확신도 없고, 그러한 나의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을 향한 도전이며 개척입니다. 새로운 이상과 희망을 나 스스로의 삶을 통해 서서히 구체화시키고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삶의 혁명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앞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영적인 보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헌신하렵니다.

1.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기사를 내 생활과 연관시켜 나눔시다.
2.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어 오늘을 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부록

### 참고문헌(가나다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성경을 읽기 위하여, 성바오로 출판사, 1999.  
 백광진, 인터넷 성경 자료.  
 생활성서사 역, 성경의 길을 따른 여정 첫걸음 구약 성경1 오경과 역사서, 생활성서사, 2010.  
 생활성서사 역, 성경의 길을 따른 여정 첫걸음 구약 성경2 시서·지혜서와 예언서, 생활성서사, 2010.  
 영원한도움 성서연구소 편, 성서사십주간 성경읽기안내 구약1, 성서와 함께, 2007.  
 영원한도움 성서연구소 편, 성서사십주간 성경읽기안내 구약2, 성서와 함께, 2007.  
 이기락 역, 구약 성경 새 번역16, 열두 소예언서(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쿱, 스바니아, 하깨이, 즈카르야, 말라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임승필 역, 구약 성경 새 번역1, 시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2, 잠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3, 율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4, 룻기·아가·코헬렛·애가·에스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5, 이사야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7, 창세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8, 예레미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9, 탈출기·레위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11, 에제키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13, 정영한 역, 민수기·신명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17, 다니엘·토빗·유딧·지혜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정태현 역, 구약 성경 새 번역6, 집회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8, 바룩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10, 사무엘 상·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12, 열왕기 상·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_\_\_\_\_, 구약 성경 새 번역18, 마카베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_\_\_\_\_, 임승필 역, 구약 성경 새 번역14, 역대기 상·하·에즈라·느헤미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정학근, 임승필 역, 구약 성경 새 번역15, 여호수아·판관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하루 한 장 성경 읽기(구약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2009.  
 허영엽 역, 말씀을 따라서 구약 성경 길잡이, 기쁜소식, 2006.

# 성경말씀 맛들이기

## 구약성경

---

교회인가 | 2012년 6월 14일

초판 1쇄 | 2012년 8월 15일

엮음 | 심홍보

사진 | 김귀웅

펴낸이 | 전갑수

펴낸곳 | 기쁜소식

등록일 | 1989년 12월 8일

등록번호 | 제 1-983호

136-875 서울 성북구 성북로 5길 44(성북동 1가)

☎ 02·762·1194 FAX 02·741·7673

E-mail : goodnews1989@hanmail.net

가격 5,000원

ISBN 978-89-6661-025-9

978-89-6661-024-2(세트)